지역영상미디어센터
상영사업 사례집

영화봤어, 오늘도 ♪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CONTENTS

목차

01
시작하며

006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상영지원 사업 돌아보기

02
상영프로그램

012 익산여성영화제
018 원주여성영화제
022 강릉장애인인권영화제
025 순천스쿨영상제
028 화천 야시매 토요극장
033 오!재미동 단편영화 개봉극장

03
상영+부대·교육프로그램

042 어린이 애니메이션 자동차극장 [수원]
045 어린이영화상영 심리프로그램 나도 성우다! [은평]
050 영화, 내 꿈의 안내자 [제천]
053 영화가 있는 즐거운 교육마당: 꿈처럼 영화처럼 [옥천]
059 청춘내:일 [전주]
064 CINE DJ [서천]
068 무비트립, 낯선 나라에서 [주안]
072 엄마의 그림일기 [은평]

04
시민프로그래머 교육+영화제

078 일상의 특별한 순간, 수원사람들 영화제
084 앨리스와 친구들의 진주같은영화제

05
미디어센터+상영관

[원주 아카데미극장]
090 C도로-Cinema Road
093 원주 단관극장의 풍경들 그리고 추억
[인디플러스천안]
097 천안에 indie를 더+하다

06
미디어센터+스태프

102 2016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상영스태프 워크숍

[시작하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상영지원 사업 돌아보기

김명아, 김진숙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 지원 - 상영지원 사업(이하 상영지원 사업)은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터)의 다양한 상영 사업을 지원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지속된 상영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의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미디어센터를 알리고, 영화를 매개로 지역민들이 만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01

여러 해 동안 상영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미디어센터 상영 사업이 미디어센터 상영관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대안적 상영공간**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2012년 사업을 갈무리하고 2013년 사업을 준비하며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은 미디어센터 상영 사업 현황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전국 30곳의 미디어센터 중 20곳이 미디어센터 상영관을 활용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상영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10곳의 미디어센터 중 상영관 및 상영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센터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현황 조사를 통해 미디어센터의 상영 사업이 상영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2년, 2013년 상영지원 사업은 독립예술영화 개봉관으로서 미디어센터 상영관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상영관을 중심으로 유료 상영회를 진행할 수 있는 **6개(2012년), 7개(2013년)의 센터가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사업을 갈무리하며 센터별로 상영 사업의 운영 목표, 프로그램, 지역과의 연계, 운영 조건 등이 다름을 확인하였고, 정기·기획상영의 안정화, 지역영화제 활성화, 독립예술영화 비상설 개봉관 운영 등 센터별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을 각각 지원하는 것으로 상영지원 사업의 방향을 재설정하였습니다. 센터별로 다양한 상영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2014년에 13개 센터, 2015년에 16개 센터, 그리고 2016년에는 18개 센터가 참여**하였고 이 중 상영관이 부재한 미디어센터 또한 지역의 카페 등의 대안공간을 활용하여 상영회, 영화읽기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강릉 / 고양 / 순천 / 원주 / 제천 / 진주 6	고양 / 성남 / 순천 / 원주 / 제천 / 진주 / 화천 7	강릉 / 목포MBC / 부천 / 수원 / 순천 / 오재미동 / 원주 / 익산 / 전주 / 제천 / 진주 / 천안 / 화천 13	강릉 / 강서 / 목포MBC / 부천 / 수원 / 순천 / 오재미동 / 옥천 / 원주 / 익산 / 전주 / 제천 / 주안 / 진주 / 천안 / 화천 16	강릉 / 강서 / 부천 / 서천 / 수원 / 순천 / 오재미동 / 옥천 / 울산MBC / 원주 / 은평 / 익산 / 전주 / 제천 / 주안 / 진주 / 천안 / 화천 18

02

상영공간의 다양화와 함께 **프로그램의 다양화**도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앞서 언급한 상영 현황 조사에 따르면 많은 미디어센터들이 예산, 인력, 공간 등의 어려움으로 정기 상영회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디어센터의 상영 사업이 지속되면서 지역의 수요가 늘어나고 관계 맺는 지역 공동체도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상영지원 사업의 지원이 더해져 상영프로그램의 다양화 뿐만 아니라 상영과 연계한 교육·부대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다양화는 어린이, 청소년, 학부모, 여성 등 참여 대상의 다양화도 함께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부적으로는 센터별로 차이가 있지만, 상영프로그램이 사업 초기에 여성, 배리어프리영화 등의 비슷한 주제의 작품 상영으로 진행되었다면 현재는 청년, 가족, 힐링, 환경 등의 주제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평소 볼 기회가 거의 없는 '단편영화'를 특화하여 상영하는 '단편영화 개봉극장'과 같은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디어센터에서 상영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는 부대프로그램은 주로 관객과의 대화였으며 영화의 주제와 연계하여 강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2012년 상영지원 사업에서는 관객과의 대화를, 2013년에는 관객과의 대화와 '영화수다'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014년부터는 센터별로 시민프로그래머 양성과정, 영화읽기 교육, 영화-미술치료, 중학교 자유학기제 영화교육 등 상영과 연계된 **다양한 부대·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원영상미디어센터는 시민영화프로그래머를 발굴하고 자신들만의 영화제를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의 시민영화프로그래머 양성과정을 올해로 3회째 진행하였습니다. 첫해 년도의 사업을 보완하여 시민영화프로그래머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기초과정 '영화감상워크숍_일상적 영화보기와 수다', 프로그래머와 영화제를 이해하는 '시민영화프로그래머 입문과정'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화제를 기획, 운영할 수 있는 '시민영화프로그래머 멘토링 과정'으로 교육을 구성하고 후속 활동으로 수원사람들 영화제를 기획·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진주시민미디어센터는 진주같은영화제와 연

계하여 활동할 시민들을 발굴하기 위해 시민프로그래머 양성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양성과정을 통해 영화제 및 영화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봄으로써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영화 환경을 분석하고 지역에서는 어떤 영화제를 만들어 볼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 참여자들은 진주같은영화제 지역단편 상영작 및 폐막작을 선정하고, 지역 사람들에게 영화를 소개하는 역할을 맡아 홍보물에 영화 감상평을 작성하였습니다. 또, 영화제 기간에는 모더레이터로 활동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강서구영상미디어센터, 은평뉴타운미디어라이브러리센터 등도 올해 처음으로 각 지역에 맞는 커리큘럼과 방식으로 시민프로그래머 양성교육을 진행하며 영화를 통한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진행되었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영화·영상제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2년을 기준으로 미디어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영화제는 고양·천안·원주·익산여성영화제, 강릉장애인인권영화제, 익산장애인영화제, 전주시민영상제 등이었으나 이후에는 위에 언급한 영화제에 더해 수원사람들 영화제, 솜리아이쿱영화제, 강서힐링영화제 등 지역의 다양한 공동체와 연계하여 그 지역만의 주제로 영화·영상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9회째 진행된 진주같은영화제는 6회까지 진행되다 예산 등의 어려움으로 몇 년간 영화제를 운영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2014년, 제7회 영화제를 다시 시작하였고 상영지원 사업을 통해 상영·부대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받아 영화제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03

상영프로그램 기획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또 한 가지 지점은 **시민제작영상 상영을 활성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2014년, 2015년에는 미디어센터의 미디어교육·제작지원 등을 통해 제작된 시민영상을 상영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주로 제작된 지역에서만 상영되었던 영상이 다른 지역에서도 상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주시민미디어센터는 오랫동안 진행해 온 시민영상제에서 지역교류 섹션으로 다른 지역에서 제작된 영상을 소개하였고 올해 원주여성영화제 역시 다양한 지역의 시민영상을 상영·소개하였습니다. 미디어센터 자체 영화제뿐만 아니라 수원 지역에서 진행되는 마을영화제에서 수원영상미디어센터에 프로그램 협력을 요청해 시민 제작 영상이 마을영화제에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강릉영상미디어센터,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수원영상미디어센터 등 지역영화제를 통한 시민영상 상영이 각 지역에서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상영관이나 특정 오프라인 공간뿐 아니라 '티브로드'와 같은 지역케이블방송을 통한 상영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04

이처럼 미디어센터 상영 사업은 연차를 더할수록 미디어센터의 활동들과 함께할 수 있는 지역민, 공동체 등을 발굴하고 연계하기 위한 사업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영지원 사업 2년 차 이상의 센터들에 있어 주목할 점은 **공동체 영역의 사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천시민미디어센터의 경우, 5인 이상의 소규모 모임에 상영콘텐츠·장비·장소를 지원하는 '오감동 상영회' 사업을 운영하여 지역 단체와 모임 등의 상영회 및 이야기 나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공동체 상영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지역 공동체, 모임 등을 발굴하고 활동을 연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5년 하반기에는 '우리동네 마을극장 지원사업'을 통해 부천 지역에서 다양한 주제, 프로그램으로 상영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모임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상영관이 없는 목포MBC시청자미디어센터, 전주시민미디어센터 등은 지역 공동체나 영상제작 동호회 등과 연계, 지역의 공간을 활용하여 상영회나 영화제, 영화읽기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5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성과는, 상영프로그램의 기획부터 운영까지 고민하며 진행하고 있는 **상영스태프들**입니다. 사업의 시행착오와 성과는 그것을 운영하는 스태프들의 시행착오, 그리고 성과와도 이어져 있다 생각합니다. 일 년에 고작 몇 번의 간담회와 회의, 스태프 워크숍만으로는 충분한 고민을 나누고 함께 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함께 고민하고 토의하는 자리가 꾸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1]

지난 몇 년간을 돌아보며, 미디어센터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상영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다양한 지점들과 시도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 다양한 경험과 성과들을 쌓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영지원 사업 역시 초반의 시행착오를 통해 방향을 재설정하고 긍정적인 성과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미디어센터 상영 사업의 프로그램이 다양해지는 만큼 프로그램을 어떻게 기획할 것인지와 함께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새로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화제, 상영회를 지역민들과 연계하여 기획·운영하고 있는 미디어센터가 늘어나고 있는데 미디어센터와 지역민들이 협력하고 파트너십을 어떻게 맺어갈 것인지 개별 미디어센터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전체 미디어센터 차원의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1) 올해(2016년) 상영스태프 워크숍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100~105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상영 프로그램

012 익산여성영화제
018 원주여성영화제
022 강릉장애인인권영화제
025 순천스쿨영상제
028 화천 야시매 토요극장
033 오!재미동 단편영화 개봉극장

전국에 있는 미디어센터는 지역과 조건이 다양한 만큼 각 지역의 지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따로 또 같이 고민해왔다. 지역 단체들과의 연계를 통해 영화제를 개최하기도 하고 , 지역의 문화적·공공적 필요나 지리적인 위치를 고려한 프로그래밍을 하기도 한다.
센터별 이슈에 따른 몇 가지 상영프로그램들을 소개한다.

[익산여성영화제 ①]

봄, 여성들의 이야기꽃이 피다

신인혜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일시 2016.4.6~4.9
장소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상영관 '재미'

내용 영화상영/감독초청/이야기마당/유아놀이방 운영 등

지난 4월 6일부터 9일까지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미극장에서는 '2016익산여성영화제'가 열렸다. 201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7년째 개최되고 있는 익산여성영화제는 지역에서 영화를 통해 여성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2016익산여성영화제'에서는 총 12개 섹션, 18편의 작품이 관객들을 만났다. <나쁜나라>, <귀향> 등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진 이슈를 다룬 영화뿐 아니라 여성의 노동과 연대를 뜨개질을 통해 들여다본 <야근 대신 뜨개질>, 결혼과 육아로 인해 자신의 꿈과 멀어져만 가는 20대 여성의 삶을 담아낸 <소꿉놀이>, 제삼자의 시선이 아닌 당사자의 목소리로 결혼 이주여성의 삶을 전하는 <편지>, 성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움직임을 담은 <레드마리아2>, 성소수자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드러낸 <불온한 당신>, 서른넷 동갑내기 장애여성들의 일상, 그 치열한 삶의 여정을 담은 <서른 넷, 길 위에서> 등 여성제작자들이 여성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만든 다양한 작품들이 상영되었다. 영화 상영 후에는 '감독과의 대화'와 '이야기마당'을 통해 영화 속 이슈와 고민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여성을 주제로 한 영화제를 '재미'와 지역 여성단체가 함께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 '2016익산여성영화제' 관객 후기

영화 상영 후 감독과의 대화
영화가 상영되는 모든 시간대에 유아놀이방 운영

4.6 수	4.7 목	4.8 금	4.9 토
		10:30 소꿉놀이 감독초청 전체/95분	
13:30 서른 넷, 길 위에서 감독초청 전체/84분	13:30 문소리 단편선 12세/42분	13:30 대답해줘, 편지 감독초청 전체/91분	14:00 레드마리아2 감독초청 18세/120분
16:00 야근 대신 뜨개질 감독초청 전체/105분	15:00 자연농 감독초청 전체/64분	16:00 나쁜 나라 감독초청 12세/120분	17:00 익산여성감독전 감독초청 전체/58분
19:00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이야기마당 18세/90분	19:00 불온한 당신 감독초청 12세/100분	19:00 귀향 이야기마당 15세/127분	

매년 4월에 열리는 익산여성영화제. 올해는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와 농촌이민여성센터, 솜리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원광대학교대안언론해우소, 익산여성의전화, 전북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로 구성된 익산여성영화제 기획단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익산여성영화제 기획단에 참여하는 지역 여성 단체들은 상영작 선정부터 감독과의 대화 진행, 부대행사 운영 등 영화제의 전 과정을 함께 준비하고 진행한다.

익산여성영화제 기획단의 활동은 연초부터 시작된다. 영화제 3~4개월 전 기획회의를 시작하여 단체들은 직접 상영작을 선정하고 그 영화를 상영하는 섹션의 인사말부터 감독과의 대화까지 전 과정을 맡아 진행한다. 상영작 선정은 단체 활동과 관련이 있거나 회원들이 관심을 보이는 주제의 영화, 여성들과 함께 보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영화 등 단체 회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영화제 기획회의에서는 영화제 상영 작품 프로그래밍뿐만 아니라 영화제 포스터 디자인, 부대행사 등도 함께 논의된다. 영화제 기간 동안 운영되는 부대행사는 공동주최 단체들의 자발적인 아이디어와 참여로 이루어진다. 올해의 경우 '위안부 할머니 그림 전시', '416 2주기 진실의 얼굴 만들기', '이주여성 제작 소품 판매', '점자 체험', '벼룩시장' 등이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부대행사는 관객들이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영화제에 참여하고 참여 단체들의 활동에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나와는 다르다 생각하며 무심했던 부분에 대해 생각할 계기를 주어 좋았다."

- '2016익산여성영화제' <서른 넷, 길 위에서> 관객 후기

익산여성영화제를 찾은 관객들의 후기를 보면 감독과의 대화 시간이 좋았다는 이야기가 제일 많다. 익산여성영화제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감독과

의 대화는 영화 속 이슈와 주제에 대해 감독과 관객이 함께 다양한 생각들을 나누는 자리다. 익산여성영화제에서는 섹션별로 1시간 내외의 감독과의 대화 시간을 배치하는데 시간이 부족해 아쉬웠다는 반응이 있을 정도로 관객들의 참여도가 높다. 감독과의 대화 시간에는 영화를 보면서 관객이 느낀 의문에 대해 감독이 직접 설명해주기도 하고, 영화 속에 담긴 사회적 이슈와 주제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기도 한다. 작품 제작과정의 뒷이야기와 미처 작품에 포함되지 못한 내용들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길다고 생각했던 1시간은 어느새 지나가 버린다.

"인간의 존엄, 인권 등도 중요하지만 정말 주위의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일상을 담은 영화들을 알게 되고 볼 수 있어서 좋았다."

- '2016익산여성영화제' 관객 후기

익산여성영화제에서 단연 주목받는 섹션은 '익산여성감독전'이다. 익산여성영화제의 폐막 섹션이기도 한 '익산여성감독전'은 익산여성제작자들이 제작한 작품을 상영하는 시간으로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 운영하는 미디어교육을 통해 제작된 작품과 여성영화제작지원을 통해 제작된 작품 등이 상영된다. 유명 감독이 제작한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다룬 작품이 아니라 지역 여성들이 자신의 눈으로 바라본 지역 여성의 삶과 그 안에서 느끼는 고민, 생각들을 담아낸 작품이 폐막작이라는 것은 지역영화제로서 익산여성영화제가 지닌 정체성과 목표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번 '익산여성감독전'에서는 명절을 도맡아 준비해야 하는 큰며느리의 애환을 다룬 박희순 감독의 <나의 명절 반란기>와 자녀 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시선과 공부에 대한 자녀들의 생각을 담은 김명희 감독의 <우리가 어때서>, 아이들이 숲을 만나고 알아가는 과정을 담은 김진경 감독의 <숲>, 사람 온기가 가득한 골목길에서의 삶을 꿈꿨지만 도심 속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자신의 삶을 들여다본 허윤희 감독의 <외딴 집>, 가족과 일을 위해 헌신해온 중년 여성이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권미숙 감독의 <상큼발랄 좌충우돌 오춘기>가 상영되었다. 이 다섯 작품은 지역 안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가족 안에서의 갈등, 자녀 교육, 삶의 방식 등에 대한 고민과 생각이 담긴 작품으로 관객들의 공감과 호응이 높았다.

이 중 <우리가 어때서>, <숲>, <외딴 집>을 제작한 김명희 감독, 김진경 감독, 허윤희 감독은 익산여성영화제의 여성영화제작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영화제작단 막'으로 활동하고 있다.

익산여성영화제의 여성영화제작지원 프로그램은 '여성'을 주제로 영상물을 제작하려는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제작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개인, 동아리 모두 신청 가능하다.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는 여성영화제작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된 제작자에게 제작 활동에 필요한 촬영, 녹음, 조명 장비, 편집실 등 장비와 센터 공간을 지원하고 작품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여성영화제작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된 작품은 익산여성영화제를 통해 상영된다. 2011년부터 시작된 여성영화제작지원 프로그램은 지역 여성제작자들의 작품 제작 지원을 통해 지역 여성제작자들의 제작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다. 그리고 완성된 작품을 익산여성영화제에서 상영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지역 여성들의 삶과 고민이 공유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2016익산여성영화제'에서 <문소리 단편선>을 본 관객은 이런 후기를 남겼다.

"화려함 뒤, 보통 여성들과 똑같은 삶. 아! 우리 여성들 이야기입니다."

익산여성영화제에서 상영된 작품들을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 나흘 동안 소개된 18편의 작품들은 각기 사연도 상황도 다르지만, 여성이기에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편견과 여성이기에 겪어야만 했던 차별의 순간들을 담담하게 때로는 격렬하게 담아내고 있었다. 우리는 하얀 스크린 위에 깜빡이는 화면 속 여성들을 보면서 함께 울고 웃었다. 영화 속 주인공의 모습에서 내 어머니, 내 아내, 내 딸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건 결국은 그 모든 작품들이 우리 여성들의 이야기, 내 곁에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여성들과 지역민들이 함께 눈을 마주치고, 손을 마주 잡고, 발을 맞춰 걸어가는 시간. 내년 4월, 봄꽃과 함께 다시 찾아올 익산여성영화제가 기다려진다.

* 이 글은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저널 <미디어 생각> 제22호에 실린 글입니다.

[익산여성영화제 ②]

익산 여성영화제와 나

손인숙 (익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영화제와 나는 일곱 해를 함께 하고 있다. 칠 년 전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활동가가 '익산여성의전화'[1]를 찾아와 여성영화제 참여단체로 함께 하자고 제안했을 때의 반가움을 잊을 수 없다. 평소에 영화를 좋아했기에 영화제를 기획하는 일은 무엇보다 기쁜 일이었다.

영화제를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와 함께 하면서 놀라웠던 것은 평등하고 열린 회의 진행방식과 힘찬 추진력이었다. 영화제의 주제·작품 선정, 홍보물 만들기 작업까지를 일곱 여개의 여성단체와 함께 조율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평온하고 잽싸게 처리된다.

관객과 함께하는 감독과의 대화는 익산여성영화제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파주>, <잔인한 나의, 홈>, <레드마리아2>, <그리고 싶은 것>, <아이들>, <송여사님의 작업일지>, <화차>. 감독과의 대화에서 만난 작품들이다. 영화제 첫해, 긴장으로 무장한 채 '대화'가 아닌 '진행'만 했던 나는 이제는 감독의 눈을 보고 제법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급기야 올해 <레드마리아2>의 경순 감독을 울리기까지 했다. 관객과의 대화에서는 주연 배우에 대한 호기심부터 소수자에 대한 자신의 생각, 영화를 통해 자신이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그야말로 쫀쫀하고 내밀한 감상평과 생각들이 오간다. 이런 시간을 통해 관객뿐만 아니라 감독까지 힘을 얻는다. <레드마리아2>를 본 한 익산여성의전화 회원은 감독과의 대화를 통해 '성매매여성'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좁은 시야에서 비롯되었는지 알았고, 감독의 이야기를 통해 여성폭력문제가 얼마나 끈질기고 오래된 구조적 문제인지 알았다며 "여성의전화에서 일하기를 잘했다."고 말해 나를 놀라게 했다.

또한, 익산여성영화제는 익산여성의전화 회원들과 함께 영화를 보고 이야기하는 기회를 주었다. 올해에는 세월호를 다룬 <나쁜나라>를 보았는데, 회원들은 정치인들의 기만과 정부의 무관심, 무능함에 화가 나 보는 내내 한숨과 눈물을 흘렸다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고 세월호 2주기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다.

익산에서 여성영화제를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는 왜 '여성'영화제를 개최하는 것일까?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여전히 차별과 편견의 대상인 소수자이기 때문일 것이다. 여성노동자, 성소수자, 폭력피해여성, 이주여성 등은 주인공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매스미디어에서 다뤄지는 소수자들의 이야기는 매번 일방적인 피해자이거나 우리와 다른 타자로 비친다.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소수자의 시선으로, 이들이 주연이 되어서 만드는 영화는 그래서 의미가 깊다. 이런 영화를 통해 시민들의 생각이 열린다면 도시 전체의 감성 역시 바뀔 것이라 생각한다.

익산여성영화제를 테마가 있는 영화제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폭력에 대한 이야기, 성소수자, 비정규직 여성이야기 등 주제를 나누어서 참여단체들이 각자 주제를 맡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익산시민들을 위해 열려있는 익산여성영화제가 우리만의 행사가 아니라 지역여성들과 함께하는 잔치가 되길 바란다.

* 이 글은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저널 <미디어 생각> 제22호에 실린 글입니다.

1) 익산여성의전화는 여성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1997년에 설립된 여성인권단체다. 주요활동은 글쓰기, 이야기 할머니, 여성학모임 등 다양한 회원활동과 여성상담학교, 인권교육출강 등 교육활동 그리고 가정폭력피해자상담과 주거지원 등 가정폭력피해자 지원활동이 있다.

[원주여성영화제]

우리는 이런 노년을 꿈꾼다 '노년상상'

심재희 (원주여성민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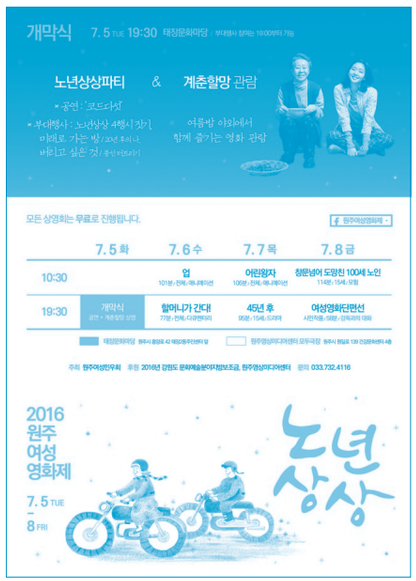
일시 2016.7.5~7.8
장소 원주영상미디어센터

내용 영화상영/야외상영/감독초청/공연/
노년상상 4행시 짓기 등 체험행사

원주여성영화제는 여성주의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성평등 문화에 대한 지향을 목표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함께 참여하고 즐길 기회와 공간을 마련하고자 2012년 첫 도전을 시작하였다. 그렇게 시작된 원주여성영화제는 원주여성민우회와 원주영상미디어센터 공동주관으로 원주의 대표적인 여성문화 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상업영화 위주의 상영문화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원주에서 완성도 높은 다양한 국내외 여성영화를 상영하기까지 좌충우돌 시행착오도 많았다. 제1회 원주여성영화제는 영화제의 경험과 노하우가 없었기에 서울국제여성영화제의 작품을 가져와 상영하는 수준이었다. "과연 영화제가 잘 진행될까?", "영화는 잘 선택한 건가?", "관객이 안 오면 어쩌지?" 등등 걱정이 앞섰다. 영화제에 지역적 특색과 '여성주의'를 담아내기 위해 지역여성들이 당면한 문제와 여성운동을 문화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거듭 고민하게 되었다. 회를 거듭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경험들을 통해 여성영화제가 성장할 수 있었고, 2012년 1회를 시작으로 2016년 올해 제5회까지 이어지고 있다.

독립영화가 내용이 어렵고 진지하여 관람이 힘들다는 편견을 없애기 위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와 작품 선정이 중요했다. 하여, 기획 단계부터 민우회와 원주영상미디어센터가 함께 영화제의 '공공성', '대중성', '작품성' 등을 고려해 주제와 작품을 깐깐하게 고르는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무엇보다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제를 만들고자 했다. 특히, 어릴 때부터 과도한 경쟁 속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에게 경쟁의 가치를 넘어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영화를 통해 알려주고 싶었다. 오전 시간대에는 모두가 관람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편성하여 다양한 사람들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할 수 있는 올바른 가치관을 어릴 적부터 심어주고 있다. 이런 작품들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동심 충전을 원하는 어른에게도 많은 힘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올해는 100세 시대를 바라보며 '노년상상'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어떻게 노년을 준비해야 하는지 노후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대안과 담론이 활발하게 이야기되는 공공의 장을 만들어 가려고 했다. 누구나 나이가 들고, 누구나 노인이 된다. 노년은 피할 수 없는, 곧 다가올, 하지만 아직은 막연한 나의 미래이기도 하다. 나이 듦의 자연스러운 과정이 마치 '끝'인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속에서 여성들은 어떤 불안을 느끼는지, 여성 노후에 대한 고민과 대안을 영화라는 매개체를 통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영화 관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험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영화제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화제의 의미를 다시금 전달하고 싶었다. 그래서 '미래로 가는 방', '내가 버리고 싶은 것', '노년상상 4행시 짓기' 등의 다채로운 체험행사가 영화제 기간에 함께 진행되었다. 그중 '미래로 가는 방'은 혼자만의 사색의 공간에서 20년 뒤인 2036년 오늘의 나의 모습을 상상하며 내가 누구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를 조용히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멋진 노년을 위해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

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천천히 고민해보는 시간은 큰 호응을 얻었다.

사실 산다는 거 자체가 불안이고, 그 불안은 항상 우리 옆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불안을 함께 나누고 연대할 때 우리는 그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이번 영화제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노년 상상'은 노년이 된 나의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기대하고 꿈꾸는 노년의 삶을 만들기 위한 바람이기에 언젠가 분명 우리가 꿈꾸는 그날을 만나게 되리라 믿는다.

문화적으로 소외된 '원주'라는 작은 지역에서 원주여성영화제가 5회까지 이어지고 자리 잡기까지 어려움도 많았다. 지역에서는 문화예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만, 영화제 전담인력이 없기에 원주여성민우회나 원주영상미디어센터의 활동가들이 여성영화제를 함께 진행한다. 이미 업무가 있는 상태에 영화제 업무가 하나 더 얹어지는 셈이고, 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과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지역 여성감독들의 부재로 인하여 여성미디어 활동가 양성의 어려움을 겪는 것 또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다행히도 매년 여성영화제 자원봉사자 친구들은 부족한 인력의 어려움을 고맙게도 채워주고 있다. 올해는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여성영화제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영화제 홍보부터 진행까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거리 홍보하던 날 갑자기 내린 소나기를 쫄딱 맞으면서도 혹여나 비에 젖을까 리플렛을 품 안에 넣고 하나라도 더 나눠드리던 서포터즈들의 열정 덕분에 많은 관객들이 영화제를 찾아올 수 있었을 것이다. 민우회가 혼자였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영화제를 기획부터 진행까지 함께 고민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큰 힘을 보태어 준 원주영상미디어센터의 활동가들에게도 늘 감사함을 느낀다. 또한, 올해는 여성영화제 서포터즈 친구들

의 도움과 더불어,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이하 전미협)의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상영료와 감독 초청료를 지원받음으로써 숨통이 트였다. 원주여성영화제가 지역 영화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전미협, 원주영상미디어센터와 함께 지역의 관객들을 찾아가는 소통의 공간을 만들고, 지역 간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며 또한 여성문화 네트워크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여성영화제 타이틀 때문인지, 매회마다 공통된 질문을 받는다. "왜 여성영화제냐?", "아직도 여성영화제가 필요하냐?" 등 여성영화의 필요성을 묻는 말들이다. 여성 상위시대인 듯한 착시효과는 여성의 빈곤화나 여성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둔감하게 만든다. 예전보다 여성의 삶이 조금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성별 고정관념이 만연하기에 관념의 틀을 깨기 위한 노력은 계속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제6회, 7회… 원주여성영화제는 계속될 것이며, 여성영화제를 통해 여성주의 가치 확산이 나비효과가 되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길 바란다. 더 나아가 여성영화제도 그 의미와 필요성이 없어지는 그날을 기다린다.

[강릉장애인인권영화제]

강릉 장애인인권영화제 '울림'

김형섭 (강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일시 2016.9.10
장소 강릉시 중앙동 문화의 거리

내용 영화상영/감독초청/공연/체험부스 운영 등

매회 1년간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영화제. 올해 9월 10일 진행된 강릉장애인인권영화제는 2007년을 시작으로 어느덧 10회째를 맞았다. 매년 장애인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전국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상영되고 있지만, 장애인들의 현실적인 이야기들보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의 내용들이 아직은 많은 것 같다. 강릉장애인인권영화제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제작한, 장애인의 삶을 주제로 한 영화를 상영함으로써 장애인의 문제 혹은 현실을 알아내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비장애인의 인식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리문화 축제로 만들고자 작년 9회째부터 강릉 문화의 거리에서 진행하고 있다. 세상과 소통하는 의사소통의 매개체 역할로써 미디어의 대상이 아닌 주체가 되어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제작한 영화의 힘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제10회 강릉장애인인권영화제는 강릉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공동주관으로 영화제 개최를 위한 사무국을 구성하고, 2016년 3월부터 영화제에 맞게 프로그램팀, 홍보팀, 진행팀, 기술팀, 초청팀, 회계팀으로 나누어 회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5월에는 영화제 운영위원을 대학교수, 지역단체 대표 등으로 새롭게 구성하고 발족식을 시작으로 영화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작년부터 야외에서 단 하루 동안 진행하면서 다채로운 행사 진행을 위해 영화 편수를 줄이고, 공연을 넣는 등 프로그램 구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과거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에서 상영한 영화를 가져오는 대신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 지원 사업 중 상영지원 사업을 통해 영화 구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구성된 프로그램을 각 언론사 및 단체에 메일과 공문으로 발송하고, 직접 찾아가 참여요청을 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6개월 동안 준비한 영화제를 하루 동안에 쏟아내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이기에 하루 동안 모든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많은 고심을 하였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섹션1은 자체제작영화인 <그거 먹어 봤어?> 외 1편, 그리고 강원래님이 연출·주연한 <엘리베이터>를 상영하였고, 섹션2는 선정작 영화로 <아우름> 외 5편, 마지막으로 섹션3은 배리어프리영화 <천국의 계단>을 상영하였다. 영화 상영 후에는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 영화제작의도 및 촬영과정 등의 내용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중간에 대학교 동아리, 강릉에서 활동하는 뮤지션의 공연도 이어졌다. 더불어 영화제를 진행하는 동안 부스를 운영하였는데, 여러 단체에서 참여하여 먹거리, 체험, 홍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꾸릴 수 있었다.

강릉시 중심에서, 그리고 지역축제인 독서대전과 맞물려 진행한 덕에 지역주민과 관광객 등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영화제에 참여하였다. 영화를 보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진행하는 우리도 즐겁게 행사를 치를 수 있었다. 하지만 배리어프리영화인 <천국의 계단>을 상영하던 도중 살짝 비가 내

려 관객들이 대피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일기예보에는 없었던 비 소식에 미처 대비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관객에게 사과하였다. 야외 영화제의 경험이 부족한 만큼 촬영, 무대경사로, 무전기 이어폰, 부스실의 위치 등에 준비를 철저히 하였지만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이다. 행사장의 경계가 모호하여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통한 차량통제가 필요했고, 영화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항들을 전달하는 기능에 중요성이 요구되었다. 내년에는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들보다 차별받고 소외당하는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담긴 작품을 상영함으로써 강릉장애인인권영화제는 장애인의 인권에 관하여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알리는 등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또한, 인권영화제를 바탕으로 사회적인 차별과 소외의 현실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리고자 했다.

영화제의 슬로건인 '울림'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줄이고 장애-비장애를 넘어 우리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자는 표현이다. 생각보다 많은 인원의 관객이 모여 비교적 성공적이라 평가되지만, 지역 내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날까지 계속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순천스쿨영상제]

꼬맹이 영상제에서 청년 영상제를 꿈꾸며

김태진 (전남영상미디어교사모임)

일시 2016.12.3
장소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내용 영화상영/감독초청/체험마당 등

'순천스쿨영상제' 벌써 5회라고?

지난 12월 3일 전라남도 순천시 행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일대에서는 '제5회 순천스쿨영상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어느덧 5회째를 맞이하게 된 이 행사는 전라남도 지역의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서로가 만든 영상을 발표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2012년에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2005년 즈음부터 영상제작에 관심 있는 선생님 서너 명이 모여 만든 '전남영상미디어교사모임' 회원 숫자가 점차 늘고 영상 제작 수준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레 영화제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순천스쿨영상제'는 다른 영화제와는 달리 영상으로 학교를 알리고, 학교 안과 밖의 다양한 아이들의 삶을 담아 세상과 소통하는 작은 창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나와 너,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라는 주제로 공모작 5작품(<아버지>, <세 가지 사랑 이야기>, <매일 지각하는 아이>,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이 녀석들>)과 초청작 2작품(<말썽쟁이>-인디애니페스트2015 상영작, <롤라>-제11회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개막작)을 상영하였으며 오전 체험행사로 클레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조금 쌀쌀한 날씨였지만 유치원 꼬마들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까지, 그리고 많은 학부모님과 지역민이 함께 모여 클레이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영화를 감상하였습니다.

영상제 뭣이 그리 어렵간디?

지금까지 '순천스쿨영상제'를 준비했던 5년의 시간은 회원들에게 크나큰 즐거움과 동시에 많은 걱정거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중 걱정거리들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예산 문제입니다. 외부의 재정 지원 없이 행사를 진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매년 행사 규모와 내용을 선정하는데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예산입니다. 지금까지는 순천교육지원청과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두드림,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의 도움으로 예산 지원과 행사장 대여, 영화 상영이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언제쯤 전용 극장에서 그야말로 영상제다운 영상제를 멋지게 열 수 있을지 늘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어려운 점은 영상제의 내용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운 전문가들의 작품과 학생들이 직접 참여한 작품 중에서 어떤 것의 비중을 높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아직도 분분한 상황입니다. 1회 영상제 때 외부 전문가들의 작품이 주로 상영되고 학생들은 체험마당에 참여했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순천지역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만든 작품들의 비중을 높이고 타 영화제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 일부를 상영하는 수준에 이르러 어느 정도 스쿨영상제의 취지를 살리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영되는 작품들의 수준도 꽤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상영작의 숫자와 수준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영상을 만든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교사는 교사대로 학생들은 학생대로 매우 바쁘고 정신없이 1년을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영상제작에 관심을 갖는 교사들조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추억 영상이나 졸업식, 기타 행사 관련 영상을 만드는 정도의 활동에 그칠 뿐 지속적이고 더 깊은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만드는 데는 더 이상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전남영상미디어교사모임에서 전라남도 지역 교사들을 대상으로 단편영화제작 연수, 편집 프로그램 강의 등을 활발히 한 덕분에 점점 영상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교사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걱정거리는 관객들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가용한 예산과 인맥을 총동원하여 홍보를 마친 상황이더라도 행사 당일만 되면 '과연 오늘은 몇 명이나 올까?' 하는 걱정을 하곤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의 각종 행사가 마무리되는 11월 중순 이후에 영상제를 개최하고는 있지만, 더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과 지역민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늘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다섯 살 꼬맹이 영상제가 어떤 모습으로?

5회째 스쿨영상제를 마무리하면서 '벌써 다섯 번이나 했구나'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 영상제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행사를 주최하는 교사들은 몇 년 후 지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 언제쯤 이 영상제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스스로 잘 굴러가게 될 수 있을지 살짝 걱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좋은 작품들이 많이 상영되고 있다는 점과 무엇보다 영상에 관심을 갖는 제자들을 많이 만나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배우가 되겠다는 꿈을 이야기할 때 참으로 감격스럽고 영상제를 여는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내년 영상제도 기대된다는 학부모님들의 격려와 중학생이 되어서도 또 오겠다는 6학년 아이들의 믿을 수 없는 약속에 그저 즐겁기만 합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 어떤 영화제에서도 볼 수 없는 우리 아이들의 생생한 모습과 어른들이 살았던 경쟁의 삶이 아닌 아이들 스스로 협력하고 존중하는 삶을 카메라에 담아 세상과 소통하도록 돕는 데 '순천스쿨영상제'가 작은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이제 갓 걸음마를 뗀 다섯 살의 '순천스쿨영상제'가 자라 스무살 청년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희는 내년에도 좋은 작품과 기획으로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화천 야시매 토요극장]

야시매 토요상영회 분투기(奮鬪記)

*** 야시매는 화천의 옛 지명으로 '생명의 강' 이란 뜻**

박일헌 (화천생태영상센터)

일시 2016년 4월~10월 / 총 8회
장소 화천생태영상센터
내용 영화상영 및 부대행사

2016년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이하 전미협)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 지원 - 상영지원 사업(이하 상영지원 사업)에 18개 미디어센터가 선정되었다. 이 가운데 행정구역상 군 지역은 강원도 화천군과 충청남도 서천군, 충청북도 옥천군 등 3곳이다.

강원도 화천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군사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화천군은 화천읍과 간동면, 하남면, 사내면, 상서면 등 1개 읍, 4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08.92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인구 26,285명(2016년 9월 기준)으로 인구밀도는 30명 정도이다.

화천생태영상센터(이하 센터)는 화천읍내에서 차량으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다. 2016년 상영지원 사업을 시작하면서 들었던 가장 큰 고민은 '군민들이 얼마나 찾아올 것인가'였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것은 화천읍내에 소재한 작은영화관 '산천어시네마'의 존재 때문이었다. 125석 규모의 산천어시네마는 주말이면 외출을 나온 군인들과 가족들이 많이 찾고 있다. 올해는 사내면에 '토마토시네마'와 상서면에 'DMZ시네마'가 추가로 개관했다. 좋은 시설을 갖춘 작은영화관과 경쟁(?)해야 하는 센터의 입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의 심정이었다. 물론 우수영상물 상영이라는 상영지원 사업의 목적으로 보면 개봉작 위주의

작은영화관 상영작과는 체급도 다르고 운동장도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업을 하는 내내 비교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틈새시장으로 생각한 것은 '학교'였다. 센터와 비교적 가까이 있는 화천중학교와 화천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작품을 상영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4월 첫 상영작으로 <60만번의 트라이>를 선정한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군청 게시판을 통한 홍보와 지역 신문 홍보 외에도 학교를 직접 찾아가 포스터를 붙였다. 그러나 희망은 희망일 뿐이었다. 참여 인원 5명! 한 번에 큰 성과를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힘이 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다시 심기일전! 5월 상영작은 화천읍내에 있는 화천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획했다.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의 인디애니유랑단[1] 프로그램의 <말썽쟁이> 섹션을 상영했다. 총 참여 인원 100명! 2회 상영을 준비했다. 화천초등학교 학생들은 화천교육지원청의 지원을 받은 통학버스를 이용하여 센터를 방문했다. 그러나 통학버스 운영 시간 문제로 2회 상영을 중간에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6월 상영작은 <세상의 끝에서 커피 한 잔>이었다. 센터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와 화천읍내에 군인 가족들이 주로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 홍보물을 전달했다. 또한, 화천읍내에 있는 커피 전문점 매장에도 영화 포스터를 부착했다. 센터에서는 자체적으로 찾아오는 군민들을 위해 커피 시음 행사를 준비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발생했다. 화천생태영상센터는 강원도 생활문화센터 거점센터를 겸하고 있는데, 그날 오후 4시에 생활문화센

1) 인디애니유랑단은 국내 유일 독립애니메이션 축제인 인디애니페스트 출품작들을 섹션별로 모아 진행되는 전국순회상영프로그램이다. 영화제의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넘어 다양한 상영기회를 만들고 한국독립애니메이션에 대한 접근성과 인지도를 높이며, 이를 통해 문화다양성 및 독립애니메이션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한다.

터 음악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다. 지하에 있는 작은 공연장에서는 리허설을 하고 있었다. 음악 공연은 4시 시작이었고, 영화 상영은 2시 시작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오판이었다. 상영 내내 음악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결국, 몇 분이 시끄러워서 영화를 볼 수 없다며 자리를 떴다. 명백하게 나의 불찰이었다. 다만 배려가 아쉬웠다. 리허설 시간을 조금 줄일 수도 있었을 텐데. 상영 내내 리허설은 조금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래도 그 와중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준 분들이 고마웠다.

7월에는 야심차게 야외 상영을 준비했다. 화천에 있는 조경철천문대와 함께 별자리 강좌와 관측 행사, 그리고 회심의 카드 '인디애니유랑단' 프로그램의 <스페이스 오디세이> 섹션으로 흥행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준비는 준비일 뿐이었다. 좋았던 날씨가 상영이 예정되어 있는 주 내내 갑자기 나빠졌다. 계속되는 비와 구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영 당일에는 화천군 쪽배축제 개막공연이 있었다. 공연 참가자가 200명이 넘는 대형 공연이었다. 즉 센터의 상영 시간과 겹친(저녁 7시) 이 대형 공연은 허리케인처럼 다가왔다. 몇 통의 전화를 받았다. 쪽배축제 개막공연에 가족이 출연해서 그곳에 가야 한다고, 미안하다고. 상영 당일 오전, 부슬비에 옅은 안개까지 끼어서 결국 별자리 강좌와 관측 행사는 취소하고 상영 장소를 센터 건물 지하에 있는 공연장으로 변경했다. 아무도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거의 체념했는데 다행히(?) 두 가족이 찾아주었다. 그리고 쪽배축제 개막공연은 내리는 비와 가시거리 1미터가 안 되는 짙은 안개로 취소되었다.

8월 상영은 안전하게 진행하고 싶었다. 그래서 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동체 상영을 선택했다. 화천자원봉사센터를 찾아가 자원봉사자분들과 함께 영화를 보는 것을 제안했다. 화천자원봉사센터 측은 흔쾌히 동의했다. 상영 가능한 목록을 보내주었고, 화천자원봉사센터는 <세컨드 마더>를 선택했다. 적당히 체면치레를 할 수 있는 인원, 욕먹지 않을 인원이 준비된 상영이란 얼마나 마음 편하고 좋은가! 그런데 말입니다. 좋아야 하는데, 마음이 편

치가 않았다. 무언가 빠져 있다는 허전한 느낌이 계속 맴돌았다. 노력하지 않은 사업, 땀이 없는 사업은 몸은 편하지만 마음은 불편하다. 아주 많이!

10월에는 동시상영을 준비했다.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지만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센터의 사업은 늘 하던 방식을 아무 고민 없이 하는 '습관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높다.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전미협의 상영스태프 워크숍은 습관이라는 함정에 빠진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진주시민미디어센터의 사례발표가 인상적이었다.

강원도 화천군은 접경지역이라고 불린다. 이 단어는 슬픈 역사를 지닌다. 남북의 분단에 따라 북한과 가까운 곳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직업군인의 비중이 높은 화천은 2~3년 단위로 군인가족들의 전출입이 빈번하다. 그리고 화천 토박이보다는 외지 출신 거주민의 비중이 높다. 또한, 강원도의 여타 군 지역과 마찬가지로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상영지원 사업과 센터의 여러 사업은 화천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상영지원 사업은 지역의 상황에 맞게 보다 많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가령 시 단위 지역과 군 단위 지역의 상영프로그램을 전미협과 지역센터가 사전 협의를 통해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 기존의 단순 카테고리별 상영 목록 제공에서 벗어나 지역별, 연령별, 학년별 상영프로그램 기준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학년별 상영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기존의 단순 영화감상 및 감상 후 토론식의 획일적 운영이 아닌 영화와 인문학을 연계하는 등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역 미디어센터가 단독으로 진행하기에는 많

은 어려움이 있다.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운영은 각 지역 미디어센터의 몫이지만, 그 전제가 되는 공통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전미협의 역할이 필요하다.

2016년 상영지원 사업은 기대와 현실의 냉정함이 반복되는 사업이었다. 제한된 인원으로 사업에 힘을 쏟아야 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았다. 지역미디어센터는 교육기관이다. 이것이 내가 가진 명제이다. 올 한 해 상영지원 사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센터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하나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2017년에는 센터가 하나의 교육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고, 본연의 목적을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날짜	영화명
4.30	<60만번의 트라이>(박사유, 박돈사, 2013)
5.28	인디애니유랑단 <말썽쟁이> 섹션
6.25	<세상의 끝에서 커피 한 잔>(치앙시우청, 2014)
7.29	인디애니유랑단 <스페이스 오디세이> 섹션
8.26~27	<세컨드 마더>(안나 무이라에르트, 2015)
9.30	<마음이 외치고 싶어해>(나가이 타츠유키, 2015)
10.29	<괴물의 아이>(호소다 마모루, 2015) <걸어도 걸어도>(고레에다 히로카즈, 2008)

[오!재미동 단편영화 개봉극장]

오!재미동 단편영화 개봉극장

: 태생부터 진행까지, 실무자의 느낀점과 고생담을 중심으로

이진희 (충무로 영상센터 오!재미동)
단편영화 개봉극장을 기획했고, 직접 운영 한다고
수많은 시간을, 고민을, 생각을, 어쩌다 재미를 단편영화 개봉극장과 함께 하고 있다.

일시 2016년 5월, 7월, 9월, 11월 첫째 주 목, 금, 토
장소 충무로 오!재미동 상영관
내용 단편영화상영 및 감독초청

단편영화 개봉극장을 아세요?

'단편영화는 개봉을 못한다!'는 고정관념에 신선한 콧바람을 넣어 줄 이 프로그램은 오!재미동에 맞춤하여 2013년 '단편영화 일주일 개봉극장'으로 시작했다. 2014년 '단편영화 개봉극장'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3일로 상영회차를 바꿔, 2016년인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거의 눕다시피 영화를 볼 수 있는 빨간 소파 4석까지 꼬박, 28석의 의자가 놓인 작은 극장을 가진 오!재미동이었기에, 원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둘러볼 수 있는, 실제로 그러기 쉽게 지하철역 안에 자리하고 있는 오!재미동이었기에, '영상으로 뭔가를 표현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원한다면 발을 살짝 담가 볼 수 있도록 센터 자체가 가이드라인인(교육 프로그램의 개설이나 장비의 구축 등) 오!재미동이었기에, 오늘보다는 내일의 작품이 조금 더 기대되는 사람들을 위한 편집실과 독립영화 시사지원 등을 갖춘 오!재미동이었기에, 오!재미동의 연간 프로젝트, 제작워크숍 '언더그라운드 플러스'의 지향점이 15분 내외 되는 생애 첫! 단편영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었기에, 여기, 오!재미동에 있어 '단편영화 개봉극장'이 태생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으며, 당연한 일이었다.

왜 단편영화였을까?

'좋아하니까' 이 한 마디로 문단을 끝내고 싶은 짓궂은 마음이 고개를 들지만, 단편영화를 좋아하게

된 사연을 풀자면 고등학교 1학년 때를 추억하며 아련해져야 하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 그러지 않기로 한다. 일요일에 아빠 손 잡고 가서 본 극장의 영화가 짧은 것이 아니어서 그렇지 우리는 극장에 가는 문화, 영화를 향유하는 데에 익숙하다. 찾아보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단편영화에 낯섦을 드러내는 사람이 적지 않다. 단편영화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얼마든지 있다. 유명 포털에서 그런 섹션을 만들어 놓기도 했고, 감독들 스스로 콘텐츠를 유튜브에 공유하는 사례도 늘고 있으며, 단편영화만을 제공하는 사이트도 많다. 단편영화가 데뷔하는 주요 루트인, 일년

내내 거의 끊이지 않고 열리는 크고 작은 영화제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장편이어도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는 퐁당퐁당(교차) 상영하기 일쑤다. 그런데 그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는 단편에, 퐁당 말고 안정적인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 처음이었으며, 어쩌면 그것이 전부다. 단편영화 개봉극장을 통해 상영작품으로 선보이는 작품의 수는 많을 수 없지만, 공정한 상영료를 지급하고 모시고 올 뿐 아니라, 관객과의 대화에 참석하는 비용도 따로 지급된다. 그런데 관객들은 무료로 이것을 누린다!! 이 배후에는,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이하 전미협)의 예산지원이 도사리고 있다! 실로, 영화를 상영하

면서 '상영료'라는 것을 처음 받는다고 말하는 감독들이 많았다. 영화제에 상영한다고 상영료가 주어지지는 않기 때문이다(극히 일부 해외 영화제에서는 상영료를 지급한다). 실제로 다양하고 많은 단편영화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상영의 기회조차 어렵다는 점, 돈이 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단편영화를 스쳐 지나가야 하는 관문처럼 여기는 이가 많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단편은 단편영화만의 독자적인 미학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당연하지 않은 것들을, 비록 작은 움직임이더라도 조금은 당연한 것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초심이며 나아가야 할 길이다.

단편영화 개봉극장은 언제?

위에 길게 열거한 이유들로, 오!재미동의 단편영화 개봉극장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물리적으로는 홀수 달 첫 번째 주 목, 금, 토요일을 기준으로 운영된다.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목요일 저녁 7시, 금요일 저녁 7시 반, 토요일 오후 4시, 각각 상영을 1회씩 진행하고, 토요일 상영이 끝나면 GV(Guest Visit : 감독과의 대화) 시간이 이어진다.

준비과정

독립영화인 대상 작품 접수 일정 홍보 - 작품 접수 - 모니터링(접수 작품이 많은 경우, 매우 오래 걸릴 수 있음) - 고심 끝에 상영 작품 선정 - 곧바로 홍보 - 외부 작가 리뷰 작업 - 감독 미팅 - 상영본 수급 - 상영본 만들기 - 상영 - GV

(각 단계별로 소소한 홍보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접수 작품을 홍보하고 모집하고 모니터링 하는 일은 생각보다 지난하다. 작품과 작품에 대한 소개 파일을 따로 접수 받는데, 처음에는 작품만 본다. 사업 담당자 2인이 작품에 대한 평가로 후보군을 선정하고 그 후에 파일을 열어 보며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한다. 오!재미동의 모든 직원들이 후보군 작품을 모니터링 하고 최종선택 작품을 상영한다. 매 상영 마다 단편영화 2~4작품 가량이 한 섹션으로 묶인다. 어떤 테마로 엮이기 어려운 작품들이 선정된 경우에는, 억지로 이름을 붙이려 들지 않아서, 상영 전에 따로 제목을 달아주지 못했던 경우도 종종 생겨났다. 작품을 선정하고 나서는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해야 한다. 홍보는 아무리 시간이 있어도 부족하기는 하지만, 상영작품이 정해지면 바로 시작하는데 그것이 보통 상영일 20~17일 전이다. 웹을 중심으로 활용할 수 있는 채널들을 다 써 보려고 노력 중이다. 하지만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몇 년째 설문지에 단골로 등장하고 있다. 현수막이 내걸리고, 이번에 상영할 작품 정보가 담긴 리플렛이 비치되고 나면 외부 작가의 리뷰(선정 즉시 작가에게 보내고, 일정한 시간 후 받는 원고)가 당도한다. 동시다발적으로 감독과의 미팅도 진행한다. 미팅을 통해 상영본을 수급하고, 작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상영본을 만드는 작업은, 쉽지 않은데, 열악한 환경에서 촬영하다 보면 원본에 노이즈가 많은 경우도 허다하다. 원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 오!재미동이 중요시하는 것은 각 작품별 전체적인 사운드의 균형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심혈을 기울인 상영본 작업이 끝나면 전체적인 준비가 끝난다. 보통 상영이 있기 한 주 전에 시작하는 홈페이지 신청의 추이를 보고 회원대상 메일링을 보내기도 하면서 소소한 홍보들이 계속된다. 상영일에는 상영 장비 체크를 위해 한 번, 홍보물 비치를 위해 또 한 번, GV 준비를 위해 또 여러 번 극장을 들락거리며 끊임없이 확인하고 다시 본다. 최상의 상영을 위해!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해도 매년 단편영화 개봉극장에는 지정 테마곡도 있었다. 1년에 한 번씩 변경하는데, 이때 굉장한 심혈을 또 한 번 기울인다. 영화가 끝나고 설문지를 작성하면서 혹은 GV 세팅을 기다리면서 함께 할 수 있는 편안하고 감각적인 음악들을 선정한다! 그러니까 작은 부분도 소홀하지 않게 나름 준비한다. 물론, 티는 잘 나지 않는다. 그래서 설문지에 "틀어주는 노래가 좋습니다."라는 평을 발견할 때 뭔가 모르게 뿌듯한 느낌에 휩싸인다고나 할까. 2016년 단편영화 개봉극장은 보라색과 함께했다. 2014년에는 민트, 다음해에는 오렌지에서 조금 먼 주황색이었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겠지만, 매년 리플렛의 규격도 조금씩 달라졌다(한번 정한 규격은 1년 단위로 지속한다)! 메인 로고는 2014년에 지금

의 모습으로 굳어졌고 그해의 색깔과 함께, 지속해서 사용하고 있다.

장장 4년, 단편영화 개봉극장과 함께한 나날

4년 즈음 운영하고 나니 조금 낫다. 관객이 10명도 찾아오지 않았는데, 감독님을 굳이 모시고 대화를 진행해 본 사람은 안다. 주최 측으로서 송구한 마음. 그렇게 두 번 정도 GV를 치르고 나니 다음에는 GV날 관객 없음에 대한 걱정의 부피가 너무 거대해서 도무지 이 프로그램을 즐길 수가 없었다. 결국, 그 거대한 과정의 마지막, 축제 같은 날이 나에게는 가장 두근거리는 날이 되기도 했다. 2016년 즈음 되니 고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찾아주는 분들이 늘어났다. 오!재미동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이다. 단편영화 개봉극장도, 관객으로 참여하는 분들을 어떻게 한데 묶기가 어렵게 다양하다. 어린 커플들의 참여도가 조금씩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50대나 60대, 아주 세련되었다고 밖에는 판단할 수 없는 어르신들의 참여도 간혹 이어진다. 그리고 딸과 엄마가 함께 찾는 등 참 재미있고 보기 흐뭇한 광경들이 펼쳐져 조금씩 행복하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 지원 사업>과 손글씨

전미협의 지원을 받으며 달라진 점이 있다면, 상영료와 GV 부분의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것, 예산을 알아서 지출해 주시니 매우 편하다는 점, 그러나 회차마다 쏟아지는 보고서는 압박이라는 점 정도가 있겠다. 그중 가장 좋은 것은, 설문지의 운영이다. 거기에 성심성의껏 적어주는 의견들이 참 고맙다. 손글씨를 써본 적이 언제인가? 그런데 여기, 우리 설문지에는 가득가득도 써주신다.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 자랑질 하고 싶을 정도로! 대부분은 '쾌적한 환경에서 새로운 단편영화를 만날 수 있어 좋았다'는 의견들이다. 작품에 대해서 평가를 부탁한 문항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평론가가 되어 이것저것 평하는데 참 열심히 해주셔서 일면 흥미진진하며, 참 고맙다. GV 시간에는 사람들과 직접 눈을 맞추고 함께 본 작품에 대해 이야기 하지만, 설문지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 또한 생생해서 어쩌면 이것이 또 다른 차원의 소통 창구가 되는 느낌이랄까. 설문지를 운영하면서 본격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상영 시간이다. '좀 더 늦게 상영해 달라'는 의견들이 많아 반영한 결과로 2016년에 처음 도입한 7시 30분 상영은 사람들의 선택에 있어 만족도를 높이는 데 일조했고, 시행 2회 차에는 7시 30분 상영에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조그마한 성과도 거두었다. 전미협에 고마운 점은 전미협이 제시한 기준과는 약간 다른 자체 기준을 오!재미동이 가지고 있는데도,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단편영화 개봉극장'의 모습을 존중받는다는 사실이다.

쉽지 않은 일들, 아쉬운 것

격월로 꾸준히 진행되면 좋으련만, 다른 미디어센터들도 그러하듯이 연말에는 일이 폭탄이다. 그리고 연초에도 녹록지 않은 일들이 산재해 있다. 그리고 전미협의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 지원 사업> 자체도 연초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니기에 2월에 내부적으로 일정을 확고히 하고 3월부터 작품 모집에 들어간다. 그렇게 하여 실질적으로는 연간 4회 정도를 운영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싶다.

우주의 기운을 모아,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한껏 경건하니, 경어로 처리합니다)

지금까지 단편영화 개봉극장에 관객으로 참여해 주신 870분 고맙습니다. 작품으로 참여해 주신(그러니까 신청접수 작품에 머물렀을지라도) 모든 감독님 배우님 스태프님 여러분 역시 고맙습니다. 단편영화 개봉극장을 지금껏 빛내준 58편의 작품들, 존재 자체가 고맙습니다. 단편영화 개봉극장이 진행될 때면 그 급박한 일정에 맞춰 묵묵히 제 할 일을 나눠 해 주는 우리 오!재미동 사람들에게도 고맙습니다. 전미협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국에 계신 미디어센터 여러분, 제가 많이 바빠서 혹은 업무 환경이 열악해서(제가 자리를 며칠씩 비우면 다른 사람이 쉴 수가 없어요. 뿐인가요 어떤 때는 점심을 먹으러 밖에 나가는 일도 허락되지 않는답니다) 다른 분들과 눈인사 나누고 이야기할 시간과 기회가 없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막연한 동료애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과 나의 단편처럼, 소소한 이야기

단편영화 개봉극장은 보이는 것에 비하여 품이 많이 드는 프로그램이다. 정기상영전을 준비하는 일에 비하면 몇 곱절의 시간과 노력이 투하된다. 단편영화를 가지고 있는 감독이나 스태프들에게는 자신의 작품을 선뵐 수 있는 어쩌면 새로운 창구가 되어 줄 수 있다는 데에서 단편영화 개봉극장의 의미를 찾고 싶다. 관객에게는 단편영화를 영화제가 아닌 일상에서 만날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GV를 통해서 독립영화인이거나 이제 막 몇 개의 작품을 만든 감독들과 진지한 대면의 기회를 얻는다. 감독이나 혹은 영화를 만든 이들과 관객이 소통하는 장으로서 오!재미동이 기능한다.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지속함으로써, 다양한 사람들이 언제든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SNS로 초대장을 보낸 적도 있다)하고, 무료로 상영하여 그대가 이 프로그램을 누리지 못할 그 어떤 자그마한 장벽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굳은 결의를 계속하여 보여왔다. 단편영화 개봉극장은 오!재미동이 품고 있다 낳은 것처럼 당연한 일이었고, 앞으로도 헤어져야 할 적극적인 이유를 찾지 못하는 이상, 유지되어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단편영화 개봉극장, 단편영화를 좋아하는 당신에게도, 단편영화를 알지 못했던 당신에게도 덮어 놓고 권해드린다. 작기는 해도, 그에 어울리는 안락함과 그래도 극장이라고 갖추고 있는 시설에서 재미나게 단편영화를 누려주시라. 그것으로 족하니까! 고생과 노력과 보이지 않는 열과 성을 다함은 오!재미동의 몫이니, 소소한 것들마저, 당신은 즐겨만 주시라!!

상영+ 부대·교육 프로그램

042 어린이 애니메이션 자동차극장 [수원]
045 어린이영화상영 심리프로그램 / 나도 성우다! [은평]
050 영화, 내 꿈의 안내자 [제천]
053 영화가 있는 즐거운 교육마당: 꿈처럼 영화처럼 [옥천]
059 청춘내:일 [전주]
064 CINE DJ [서천]
068 무비트립, 낯선 나라에서 [주안]
072 엄마의 그림일기 [은평]

미디어센터의 상영프로그램은 멀티플렉스의 영화 상영, 무대인사 등과 차별된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성인/학부모까지 '세대 맞춤형'으로 진행된 미디어센터의
다양한 상영+부대·교육프로그램들을 소개한다. 미디어센터는 다채롭게, 모두에게 열려있다!

[어린이 대상-어린이 애니메이션 자동차극장]

어린이와 함께 영화 즐기기 '어린이 애니메이션 자동차극장'

이현주 (수원영상미디어센터)

일시 2016.5.5 / 10:00~13:00
장소 수원영상미디어센터
대상 미취학아동(5~7세) 포함 12가족(팀)
※ 아동 1명과 보호자 1명으로 구성된 가족(팀)
준비물 놀이매트, 개인간식

내용 종이박스를 활용한 나만의 자동차 만들기
나만의 자동차를 타고 애니메이션 관람하기
강사 최수인(행복학교 문화예술교육사업단 대표, 애니메이션 감독) / 김영준(스튜디오 인 선임감독) / 박지현(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강사)

시작은 이러하다. 센터 상영관은 공용공간으로 미리 대관을 신청해야만 상영관을 사용할 수 있다. 토요일은 센터가 생기기 전부터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습시간으로 붙박이 대관이 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상영관을 운영할 수 있는 고정시간은 수요일과 격주 금요일뿐. 주말 상영이 빠지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상영프로그램이 없다는 고민이 생겼다.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상영프로그램은 해보고 싶다. 안된다면 어린이날이라도!!

아이디어는 이러했다. 진주시민미디어센터(이하 진주센터)에서 매년 개최하는 '진주같은영화제'에서 2015년 아이들과 함께하는 자동차극장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아이들이 박스를 이용해 나만의 자동차를 만들고 완성된 자동차에 들어가 영화를 관람했던 사례를 보고 이거다 싶었다. 진주센터 상영사업 담당자에게 여러 차례 문의 끝에 기획을 마무리하고 본격 프로그램 착수에 들어갔다. 우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강사를 섭외하는 게 급선무였다. 진주센터의 경우 지역 어린이극단의 배우분들이 강사 역할을 맡았는데 수원에서 그렇게 인재를 찾기란 쉽지 않을 것 같았다. 그리고 어린이날

상영프로그램으로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독립애니메이션을 상영하기로 결정하면서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에 SOS를 청했다.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의 소개로 '행복학교 문화예술교육사업단'의 강사분들과 함께 "어린이 애니메이션 자동차극장(이하 자동차극장)"이란 이름으로 어린이날 특별 상영프로그램 운영을 결정했다. 센터에서는 프로그램 기획, 제반 사항 준비와 상영 운영을, 강사분들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역할을 나눴다. 5월 5일 어린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종이박스와 다양한 꾸밈도구를 이용해 나만의 자동차를 만들고 그 자동차를 타고 인디애니유랑단 <말썽쟁이> 섹션을 관람했다.

모집대상은 미취학 아동 중 5~7세로 정하고 아동 1인과 보호자 1인으로 구성된 1팀, 총 12팀을 선착순으로 모집했다. 미취학 아동으로 연령을 정한 이유는 초등학생의 경우 종이박스에 들어가지 못할까 미리 염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영결과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무난할 것 같고, 어린이날이다 보니 온 가족 참여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모집인원을 좀 더 늘려도 무방했을 것 같다. 센터의 상영관 바닥이 공연장처럼 처리가 되어 있어 각자 준비해 온 놀이매트를 깔고 자동차를 만들었다. 준비물인 종이박스부터 색종이, 크레파스, 색연필, 가위, 풀 등은 전부 센터에서 일괄 준비했고, 자동차 바퀴는 검은색 종이접시로 대신하고, 띠골판지, 뽕뽕이 등 자동차를 꾸밀 수 있는 다양한 재료들도 마련했다. 그 전날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노란색 마스킹 테이프로 주차라인은 미리 준비해뒀다.

5~7세 아이들을 중심으로 할머니부터 젊은 부부까지 다양한 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강사분의 간단한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샘플로 미리 만들어온 자동차를 보고 자신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자동차가 만들어졌다. 1명의 주강사와 2명의 보조강사분들이 자동차 만들기 진행을 도왔고 커터칼을 써야 하거나 글루건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붙여야 할 때 준비대에서 이를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조치했다.

예상보다 참여자분들이 더 빨리, 더 잘, 너무나 알아서 자동차를 만들었고 개성도 다들 제각각이었다. 크레파스나 색연필을 사용하기보다 붙이고 오리는 작업을 더 선호했고, 종이박스를 과감하게 잘라서 오픈카 형태로 만들거나 전지나 색종이를 이용해 캐릭터카를 만드는 분도 계셨다. 글루건을 사용해 붙이는 작업이 예상보다 많아서 준비된 글루건이 빨리 소진되기도 했다. 예상시간을 넉넉히 잡았는데, 10시에 시작된 프로그램은 대략 11시를 넘어서 마무리되었다. 주변을 정리하고 다 같이 자신이 만든 자동차 박스에 타고 단체사진을 찍은 후 애니메이션을 관람했다. 애니메이션 관람 때는 각자 준비한 간식을 먹기도 하고 놀이매트에 눕거나 앉아서 영화를 보기도 했다.

센터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처음이었고, 무언가를 만들고 영화까지 보는 프로그램이어서 사전에 걱정이 많았다. 종이박스로 자동차를 재미있게 만들 수 있을지, 자동차를 만들다 안전사고는 나지 않을지, 프로그램은 재미있어할지 등등. 걱정과 우려를 말끔히 씻어낼 만큼 프로그램 반응은 좋았다. 사전에 프로그램 예약을 받았는데 사흘 만에 마감이 되었고, 다들 개성 넘치게 자동차를 너무 잘 만들었다.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다들 만족감도 높았고 관련 프로그램 재개설 요청도 많았다. 독립애니메이션 상영작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 부분이 있었는데 신선하다는 반응과 아이들과 함께 보기에 좀 어렵고 낯설다는 의견도 있었다. 애니메이션 작품 선정에 있어 고민 중 하나는 대다수 애니메이션이 '전체 관람가' 등급이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는 천차만별 다르다는 점이다. 그리고 연계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상영작의 러닝타임에 대한 고민도 있다. 이번 프로그램도 새로운 상영 연계 프로그램을 시도했다는 점과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점에서는 안도했지만 결국 상영작을 어떤 작품으로 선정하느냐는 다시 고민이 되는 프로그램이었다.

[어린이 대상-어린이영화상영 심리프로그램/나도 성우다!]

미디어, 어린이를 만나다

심효진 (은평뉴타운미디어라이브러리센터)

[어린이영화상영 심리프로그램]

일시 2016.5.29
장소 은평뉴타운미디어라이브러리센터
대상 어린이, 학부모
내용 단편영화 <내 이름은 리디아> 감상 후 아동 대상 내면심리 프로그램 진행
강사 소희정(마음과 공간 예술심리연구소 소장)

[나도 성우다!]

일시 2016.10 / 총 5차시
장소 은평뉴타운미디어라이브러리센터
대상 어린이, 학부모
내용 애니메이션 더빙 체험교육
강사 김미승(어린이 성우교실 강사/배우)

01 어린이영화상영 심리프로그램- 리디아와 함께 떠나는 여행

2015년 9월 21일. 은평뉴타운도서관 개관과 함께 은평뉴타운미디어라이브러리센터의 첫 업무가 시작되었다. 지역 주민 모두가 미디어에 친숙해지고 미디어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자 디딤돌이 될 생각에 설레하며 다양한 미디어 프로그램 기획에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나날들이 이어지던 그 무렵, DMZ국제다큐영화제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

사실, 은평뉴타운도서관 1층은 어린이 자료실로, 어린이들의 책장 넘기는 소리와 속닥거리며 장난치는 소리로 가득한 곳이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책을 욕심껏 가득 안고 자료실 한 귀퉁이에 자리 잡아 초롱초롱한 눈으로 책장을 넘기는 모습을 볼 때면, 미디어센터 직원이기 이전에 도서관 사서로서

기특함과 뿌듯함에 절로 미소가 나온다.

아이들에게 책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 색다르고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할 순 없을까? 고민하던 와중에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를 통해 DMZ국제다큐영화제 측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중 <내 이름은 리디아>라는 프로그램은 항상 가족과 함께인 아이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생소한 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해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았다. 또 아이들의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님들의 사랑도 듬뿍 받을 것 같았다. 예상대로 접수가 시작되자 신청 문의가 폭주했고, 이 행운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참여자들은 평소 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대다수였다. 이렇게 은평뉴타운도서관의 책벌레 친구들은 리디아를 만나게 되었다.

내 이름은 리디아

맹모삼천지교라고 했던가, 프로그램은 시작 전부터 영상과 미술 활동이 접목된 심리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항상 함께하지만 알 수 없는 우리 아이의 마음을 알고 싶은 학부모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접수는 빠르게 마감되었고, 다음 프로그램을 기약하는 학부모들의 아쉬움이 빗발쳤다. 그리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첫 미디어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담당자의 열정과 기대도 충만한 상태였다. 2016년 5월 29일, 따듯한 햇살과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 삼삼오오 미디어센터로 입장했다. 엄마와 꼭 붙어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는 아이들과 친구와 노는데 정신이 팔려 왜 이곳에 왔는지도 모르는 것 같은 아이들, 그리고 어색하기만 한 학부모들. 그 사이로 리디아의 독백이 시작되었다.

그전까지 영화라 하면 TV 속에서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상업영화가 익숙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우리에게 다큐멘터리 단편영화라는 익숙지 않은 장르와 평범하지 않은 구성이 섞인 이 영화는 색다른 신선함을 안겨주며 영화에 점점 빠져들게 했다. 친구와 장난치기 바빴던 친구들도 어느덧 리디아의 그늘 짙은 눈빛에 눈을 맞추며,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었다. 아이들은 리디아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떤 아이들은 자신이 리디아의 상황에 처한 것처럼 리디아의 눈빛을 가득 담고 영화에 집중하고 있었다. 일곱 번의 이사, 매번 바뀌는 친구들, 여전히 익숙지 않은 이별, 그리고 예견된 가족과의 이별……. 당장 부모님의 손을 잡고 온 아이들에겐 리디아의 상황은 낯설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에 대해 생각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된 듯, 영화가 끝나고 아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이 자리를 비켜주자 엄마 옆에선 꾹 입을 닫았던 어린이도 조금씩 입을 열어 영화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말하기 시작했다. 소희정 강사님은 그런 아이들의 생각을 하나하나 정답게 눈 맞추며 들어주고, 때로는 유쾌한 질문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유도해내기도 했다. 가족을 동물 캐릭터로 만들어보는 시간은, 언뜻 보면 단순히 오리고 붙이는 미술 활동이지만 사실은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친구들과 가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손으로 나타내보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손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나면, 꽁꽁 담아두고 있었던 비밀도 알려주고 마는 것이 아이들이었다. 강사님은 엄마, 아빠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어주었다. 이어진 학부모들과의 상담에서 모르고 있었던 아이들의 마음을 알게 된 학부모들은 때로는 놀라고 때로는 심각해지며 강사님의 조언을 경청하고 끊임없이 질문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장 놀랐던 점은, 아이의 표정은 어김없이 부모의 표정과 닮아있다는 것이었다. 표정뿐인가. 말투도 분위기도 틀에 찍은 것처럼 같았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란 말이 이래서 나온 것일까? 이런 놀라운 경험은 이후 학부모를 대상으로 영화와 미술을 활용한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계기가 되었다.

02
어린이 성우교실 - 나도 성우다!

성우교실은 예전부터 꼭 해보고 싶은 프로그램이었다. 다분히 체험적인 방식에다, 흥밋거리도 있고,

나도 성우다! 커리큘럼

날짜	교육내용 및 활동
10/2	<구름빵> 소개 및 시사 - 정확한 발음으로 제대로 끊어 읽기 - 목소리로 더빙 연기하는 기초 방법 지도
도서문화축제 행사 10/15	성우의 직업세계에 대해 알아보고, 자기소개 더빙하기 - 성우란 어떤 직업인지 알아보기 - 자기소개를 애니메이션 영상에 더빙해보기
10/16	<구름빵> 더빙1 - 애니메이션 영상 시사 - 영상에 맞춰 또박또박 자신의 소리를 입히기
10/23	<구름빵> 더빙2 - 캐릭터의 감정 표현하기 - 캐릭터의 움직임에 호흡 넣기
10/30	<구름빵> 완성작 모니터 및 제작 영상 CD 배부 - 완성작품 보고 평가하기 - 참여 소감 발표

성우라는 낯설고도 익숙한 직업에 대해 알게 될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미디어'를 접하고 즐기는데 이만한 것이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미리 '대박'을 점쳐둔 이 프로그램은 도서관의 큰 축제가 겹쳐지는 10월에 진행하기로 점찍어 두었다. 성우의 직업세계에 대해 알아보고, 더빙 연기 기초방법과 실습이 더해지는 4회차 프로그램에 더해 은평구 도서문화축제 당일 특별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그동안 미디어센터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던 지역 주민에게 미디어센터를 알리고 미디어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기로 했다. 김미승 강사님께서도 이 특별한 구성을 흔쾌히 수락해주시며 어떤 콘텐츠를 하는 것이 참여자들에게 재밌고 유익한 경험일까 생각해 주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10월 한 달간 많은 지역주민을 만나고 그들의 목소리와 끼를 접하는 이 시간은 모두에게 즐겁고 색다른 경험으로 마무리되었다. 남들 앞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에 수줍어하지 않을까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친구들은 발성 연습에도 대본 읽기에도 우렁차고 밝은 목소리로 즐겁게 참여해주었다. 무엇보다 가장 흡족했던 것은 수줍어하는 아이도, 까불까불 놀고 떠들기 좋아하는 아이도, 더빙을 위해 마이크 앞에 서는 그 순간에는 누구보다도 진중하게 맡은 배역이 되고 마는 것이었다. 맡은 배역과 물아일체가 되어 목소리를 내고, 좀 더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내려고 대본을 달달 외우는 그 모습이 사뭇 달라 보이기까지 했다. 목소리를 입히는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그 배역이고 성우였다. 강사님이 입힌 목소리를 들려주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시 녹음해 달라는 아이들의 프로페셔널함이 빛나는 순간이었다. 마지막 차시 자신이 만들어낸 애니메이션을 다시 감상하는 시간에서 아이들은 부끄럽다, 못했다 하면서도 연신 싱글벙글 웃으며 함께 만든 더빙영상을 즐겼다. 하필 감기에 걸려 마지막 만남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는 얼마나 억울했던지 눈물콧물을 흘리며 더빙을 담은 애니메이션 CD를 가져갔는데, 그 모습이 여간 귀엽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에 더 재밌는 프로그램으로 다시 만나자며 약속하고 나서야 아이는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다.

우리는 자라는 미디어센터

은평뉴타운미디어라이브러리센터는 도서관으로서도 미디어센터로서도, 이제 겨우 첫 돌을 맞았다. 아직 걸음마 연습이 필요하고 나아가 좋은 기관으로 성장해야 할 임무도 존재한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의 가능성이 더욱더 무궁무진한 아이들과 우리 센터는 함께 성장해 가고 있다. 아이들은 우주를 품고 있기에 때로는 제멋대로고, 때로는 실수하고, 하지만 무섭게 집중하고 신나게 즐길 줄 안다. 우리 또한 처음에는 갈팡질팡하기도 했고 실수하기도 했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참여자 한 명 한 명이 눈에 익을수록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참여자와 함께 프로그램을 즐기게 되었다. 앞으로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교육의 장이고 선생님이라 생각하면서 아이들의 밝은 웃음만큼 좋은 미디어센터로 거듭나고자 한다.

청소년과 함께한 다양한 영화보기 시도

정동은 (제천영상미디어센터)
제천영상미디어센터에서 상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객의 마음을 두드리는 영화를 상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시 2016.10.12 / 09:30~12:30
장소 제천영상미디어센터 상영관
대상 의림여자중학교 1학년
내용 영화상영 및 리터러시 교육 (자유학기제 연계)
강사 신성미(미디어교육 강사)

제천영상미디어센터에서는 학교, 동호회 등 각종 단체의 영화상영 및 관람을 지원하는 '우리만의 봄극장'을 운영하고 있다. 각 단체의 신청을 받아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작년 61회, 올해 11월 현재까지 약 80회 진행 중이며 어린이집, 영화동호회, 복지관 등의 신청이 많다.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영화, 내 꿈의 안내자'는 '우리만의 봄극장'에서 시작되었다. 지난 4월 의림여자중학교 자유학기제 담당 교사로부터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만의 봄극장 신청이 왔고, 자유학기제와 연계할 수 있는 활동이 있는지 문의해왔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리터러시 프로그램이었다. 그러나 프로그램 진행에는 강사료 등의 예산이 따라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일단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에 문의를 했다. 다른 프로그램도 진행 예정이었기 때문에 3회 모두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강사료 1회의 지원을 요청하였고 다행히도 흔쾌히 협조해주었다. 강사료 1회 지원을 전제로 의림여자중학교 담당 교사에게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협의하였다. 담당 교사는 학교 측에 2회에 대한 강사료를 문의해본다고 할 정도로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감상할 영화, 활동 내용 등을 포함한 제안서를 전달하기로 하고 1차 협의를 마무리 지었다.

지역에서 영화 리터러시, 독서지도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신성미 강사와 함께 자유학기제에 맞는 영화와 활동에 대한 협의를 통해 <스윙걸즈>, <코러스>, <버킷리스트> 세 편의 영화를 선정하였고, 활동 또한 '자신에 대해 알아보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미디어센터 소개, 프로그램 내용, 강사 소개와 교육 계획서를 포함한 제안서를 담당 교사에게 전달하였고, 세부 일정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진행 전 협의하기로 하였다. 이후 본격적인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다시 연락을 취했을 때 강사료 문제로 인해 1회의 프로그램만 진행하기로 확정하였고, 영화는 <스윙걸즈>로 선정하였다.

10월 12일 오전 9시 30분, 의림여자중학교 1학년 56명의 학생들과 함께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즐거움을 느끼나요?' 강사의 질문을 시작으로 20분 정도 영화소개, 영화음악, 감상 포인트, 활동 등을 안내하고 영화를 상영하였다. 사실 2004년 제작된 영화라 요즘 친구들과 맞지 않거나 지루해하지 않을까 걱정했으나, 음악영화라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는지 영화 초반 어수선하던 상영관의 분위기는 생각보다 빠르게 정리 되었다.

105분의 영화 상영이 끝나고 강사의 안내에 따라 각자 소감을 짧게 나누고 활동지 작성을 시작했다. 56명의 학생을 수용할 만한 강의실이 없어 상영관에서 교육을 진행했으며, 학생들은 각자 편한 장소에서 활동지를 작성했다. 활동지는 영화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나 대사 및 그 이유, 감상평,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운지, 해보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나의 장점과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써보는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그러고 나서 강사의 안내에 따라 활동지 내용과 자기 생각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점을 본받고 싶다', '기회가 된다면 가족과 또 보고 싶은 영화인 것 같다', '처음엔 재미가 없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고나니 정말 재밌었다', '함께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운 것 같아 좋았다'는 감상평과 협동게임, 덕질, 그림그리기, 꾸미기, 요리연구 등의 일을 할 때 즐겁다는 의견들을 적어주었다. 학생들은 이 시간

이후에도 자유학기제 관련 일정이 정해져 있던 터라 프로그램이 조금 급하게 정리된 느낌이 있었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즐거운 일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던 약 3시간의 프로그램이 무사히 마무리되었다.

자유학기제 담당 교사와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하였는데, 막상 프로그램에 들어가니 학생들을 인솔하고 온 담임교사는 프로그램 내용을 미처 모르고 있었다. 진행 전 실질적으로 함께 하게 될 담임교사와 직접 의견을 나누었다면 좀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개 반이 함께 진행하다 보니 학생들의 개별 의견보다는 전체를 이끌어 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한 개 반씩 진행을 했다면 좀 더 심도 있는 밀착형 프로그램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는다.

담당교사는 영화 감상과 함께 진행한 리터러시 프로그램이 새로웠고 학생들에게 유익한 활동이 되었다는 의견을 주었다. 학생들은 '이런 영화를 또 보고 싶다', '재즈음악에 관심이 생겼다', '자신감이 생겼다' 등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기도 했고, 해보고 싶은 일이나 자신의 장점이 '없다'는 대답을 하기도 했다.

지역민의 영상문화 향유권 강화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상영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평균 한 달에 3~5회 정도 진행되는 '우리만의 봄극장'을 활용한 상영 활성화, 부대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때마침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의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 지원-상영지원 사업을 통해 이런 시도를 해볼 수 있어 뜻깊었다.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한 번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 이런 시도들이 부대프로그램 개발, 부대프로그램을 통한 상영 활성화, 나아가 장기프로그램 운영 등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본다.

[청소년 대상-영화가 있는 즐거운 교육마당: 꿈처럼 영화처럼 ①]

다양한 체험과 전문가가 전하는 이야기로 모든 삶이 꿈처럼! 영화처럼! 실현되기를

박재용 (옥천군영상미디어센터)

일시 2016년 8월~11월 매주 월요일 / 총 10차시
장소 옥천중학교
대상 옥천중학교 학생
내용 영화상영 및 리터러시 교육 (자유학기제 연계)
강사 신성미(미디어교육 강사)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영상미디어 분야는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편되고 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영상미디어를 포함한 문화예술활동을 하면서 배우고 나누는 즐거움을 느끼며, 활동을 서로 공유하고 동호회 모임을 결성하기도 한다. 그것은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이다. 친구들과 같이 하나의 놀이로써 미디어를 활용하여 그들만의 작은 세상을 만들어 간다.

그런 인생의 후배들에게 미디어에 대한 작은 희망을 안겨주고 싶었다. 처음에 필자는 '학생들에게 무엇으로 폭넓은 세상과 꿈을 담은 진로를 체험하게 해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다. 그리고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주변에 있는 중학교에 전화 설문조사를 하기 시작했다. 학교 측에서도 요즘 학생들이 미디어에 관심이 많아 미디어와 관련된 교육을 하면 교육성과가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마침 '지역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옥천읍에 있는 중학교 담당 교사와 직접 만나 면담을 하게 되었다. 학교에서도 프로그램 기획에 대해 만족스러워하였고, 영상

교육을 담당해왔던 필자로서는 이번 기회에 학생들에게 좋은 강사를 통한 미디어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시간은 수업시간 외에 매주 1회씩(2시간) 10회로 진행했고, 교육 장소는 학교 교실에서 진행하여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었다.

알면 알수록 재미와 즐거움이 가득한 영상미디어!

필자는 영상미디어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진로체험과 동시에 다양한 정보를 쌓게 하고, 이를 통해 영상과 미디어의 미래에 대한 이해를 심어주고자 했다. 미디어 강사이자,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부집행위원장으로도 활동 중이신 신성미 강사님을 섭외하여, 영화를 보고 주제에 따라 토론하며 각자의 가치관과 꿈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진로를 충분히 탐색하여 미래를 설계하도록 교육프로그램을 10회에 걸쳐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영상미디어의 성격 또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8월 29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된 수업에서 딱딱한 분위기를 벗어나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몰랐던 것을 알아가는 학생들의 모습이 행복해 보였다. 상영작 선정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선정하고 대부분 원작이 있는 영화를 상영하였으며 원작과 영화를 비교하고,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문제는 없다, 도전만이 있을 뿐이다

There are no problems — only challenges

물론 어려운 점도 있다. 중학교 학생들 대상의 수업이다 보니 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놀이 같은 수업으로 진행되어야 보다 더 집중도 높은 수업을 할 수 있다. 신성미 강사님의 미디어와 관련된 재미있는 입담에 회차를 거듭할수록 학생들의 관심도가 높아졌다. 학생들은 "미디어에 대한 이야깃거리나 직업의 폭이 좁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광범위한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영상미디어를 접하고 배우며, 즐겁고 행복해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에 몇 가지 느낀 바도 있었다. 관주도의 일방적 기획이나 수직적 지시에서 벗어나 스터디 서클(Study Circle)[1]을 통한 미디어교육을 해야 한다고 느꼈고, 또한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도 일정한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행동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는 불위호성(不爲胡成)의 믿음으로 똑같은 것을 반복하기보다는 되도록 '현장에서 답을 찾도록 발로 뛰어야겠다'라고 스스로 주문하게 된다.

미디어센터는 지역영상미디어의 발전성향을 고민하여 거버넌스(Governance) 모형을 개발하고, 청소년 및 주민들에게 시대를 이끌어가는 도전적이고 선도적인 공동체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내년에는 보다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모습으로 영상미디어 교육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큰 꿈을 꾸어본다.

차시	학습주제	교육내용 및 활동	교육자료
1	프로그램의 성격을 이해하고 자신의 영화 흥미도를 안다	오리엔테이션(프로그램 성격 안내, 강사 소개) 영화리터러시의 뜻 알기 나의 생활을 영화로 만들 수도 있음을 알기 <별별 이야기>(2005) 감상 좋은 영화는 어떤 영화?(영화의 기능 및 감상법 살펴보기)	커리큘럼표 영화기초이론지
2	원작이 있는 영화보기	바바라 오코노 작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2014) 감상 포인트 알고 영화 감상하기 원작 소개하기	영화DVD 영화감상표
3	문학과 영화의 관련성 알기	문학과 영화의 공통점과 다른점은?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책과 영화의 공통점과 다른점 찾기, 감상나누기	영화감상표 활동지
4	대인관계, 만남의 의미 생각하기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영향력에 대해 생각해 보기 롭 라이너 감독 <플립>(2010) 감상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내게 영향을 준 사람 탐색	영화DVD 영화감상표
5	극한 상황 속 피어난 인간적 우정과 존엄 배우기	영화의 시대적 배경 알기, 전쟁의 비인간성 이야기하기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2008) 감상 느낌 나누기	영화DVD 대사카드지 네임펜
6	아름다운 세상, 배려의 의미 배우기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2000) 감상 영화를 보고 떠오른 내 주위의 인물은?	영화DVD 영화감상표
7	배려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획하기	내가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배려법 찾아 이야기하기 3.3.3 방법 지도 작성해 보고 토론하기 발표하기	8절도화지 색연필
8	나에게 영향을 주는 인생의 스승에 대해 생각해보기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다면? <위플래쉬>(2014) 감상 영화 속 주인공들의 캐릭터 분석하기	영화DVD 영화감상표 활동지
9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가치관 알아보기	인상적인 대사 메모하며 영화보기 <예언자>(2009) 감상 애니메이션의 개념과 기법 배우고 이해하기	영화DVD 영화감상표 색연필
10	내 감정 인식하고 나의 정서 탐색하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은? 대표적인 감정은? <인사이드 아웃>(2015) 감상 영화가 주는 이로움과 역기능 토론하기 내가 뽑는 베스트영화3 알아보기, 수업 총평하기	

1) 스터디 서클(Study Circle)은 존중의 문화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배우며 익히는 민주적인 소규모 모임.

[청소년 대상-영화가 있는 즐거운 교육마당: 꿈처럼 영화처럼 ②]

옥천중 씨네 리터러시, <영화가 있는 즐거운 교육마당 : 꿈처럼 영화처럼> 수업을 진행하고 나서

신성미 (미디어교육 강사)

2016년 전반기부터 시범시험단계를 거친 전국 모든 중학교에 본격적으로 자유학기제가 시행되었다. 2013년부터 본 강사는 제천교육청과 제천영상미디어센터가 주관했던 영화활용교육 '영화로 꿈을 찾다'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어서 옥천군영상미디어센터가 지원하는 옥천중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인 '영화가 있는 즐거운 교육마당'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다. 작년 2015년에도 옥천군영상미디어센터 성인반과 중학교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던 터라 다소 먼 거리지만 즐겁게 수업을 맡을 수 있었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영상미디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고 온라인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찾는다. 미디어가 곧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일 정도로 미디어 매체는 이미 그들의 일상에 깊숙이 연결돼 있다. 특히 영상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대중매체 중 하나다. 휴대폰, 인터넷, TV 등 접촉할 수단이 너무나 가까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매일 쏟아져 나오는 어마어마한 물량의 영상매체는 그들의 인간관계와 가치관까지 지배하게 되는 놀라운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영상이 전하는 언어와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보다 바람직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영상 관련 리터러시 교육은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꼭 요구되는 교육이라 할 것이다.

요즈음의 교육은 한정된 공간에서 주어진 콘텐츠만을 가지고 진행되는 학습프로세스를 갖지 않는다. 교육내용과 연관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오감각 체험 교육을 이루어내는 목적을 지닌다. 따라서 영화를 이용한 접근은 변화된 교육환경에 걸맞은 좋은 학습체험활동이 되리라 생각한다. 본 강사는 이러한 취지를 십분 살리고자 주제와 연관된 많은 영화 자료 중 교육적 가치가 충분하고, 영화감상 후 다양한 학습활동을 접목할 때 그 영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읽어내고 해석할 수 있는 영화 텍스트를 골라 보았다. 그리하여 영화 속 다양한 삶을 잘 이해하고 그것에 비추어 내 삶에서도 있음직한 문제들을 잘 통찰하여 좋은 삶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목표에 초점을 잡아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또한, 매 차시마다 영화를 좀 더 심도 있게 읽어낼 수 있는 눈을 키워주기 위해 영화적 문법, 간단한 기술용어, 영화적 장치와 영화의 역사 등을 조금씩 접목해 영화의 이론적 기초를 잡으려고 했다.

영화감상 후 다양한 활동은 학생들에게 흥미 유발과 동기부여를 동시에 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작업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주인공에게 하고 싶은 말 전하기, 내가 주인공이라면 영화 속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갔을까에 대한 고민 발표하기, 영화 포스터 다시 제작해보기, 내 삶을 영화로 찍는다면 어떤 컷으로 구성할지에 대한 연구, 가장 기억에 또렷이 남는 대사 되새겨 써보기, 영화 속 인물들의 캐릭터를 다각도로 분석해보기, 주어진 장면을 자세히 스토리보드로 그려보기 등 영화와 관련해 재미있는 수업으로 구성해 낼 수 있는 아이템은 정말로 많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각 주제별 영화를 선정해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영역에 대한 간단한 배경지식을 접목함으로써 영화를 통해 인문학적 배경지식을 알고 넘어갈 수 있게 욕심을 내 보았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주역으로 살아갈 미래사회에서 이들이 영상언어에 대한 합리적인 독해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보았다.

다만 일선 학교에서 처음 시행되는 자유학기제 수업이라 운영상의 문제점과 환경적인 한계에 대한 몇 가지 아쉬운 점은 점차 개선해 나가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아쉬움으로 남는 몇 가지 문제점은,

첫째,
자유학기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선 학교 담당 교사들이 씨네 리터러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여 이러한 교육이 단순히 영화를 보여주는 수업이라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기자재나 필요한 학습 도구 등이 미비해 수업을 준비하는 강사 입장에선 어려움이 많다. 햇빛이 차단되지 않는 교실에서 작은 스크린으로 영상을 보여주면 학생들의 몰입도가 높지 않아 목표한 상호작용을 유도해 낼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영상 관련 수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학교 내 기자재나 상영공간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둘째,
전 학급을 동시에 수업에 참여시켜, 수업을 진행할 때 수강생들의 흥미도가 천차만별이라 영상에 대한 리터러시 수준의 불균형을 조화롭게 이끌어 가기가 힘들었다. 영상이 가리키는 신호와 기호, 또 영화적 은유 등을 설명할 때 그것에 대한 리터러시 수준이 많이 달라 단순히 감상하기를 뛰어넘어 스스로 사고하고 가치판단을 할 수 있게 이끌어 주는 작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됨을 느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학기제 내에서도 여러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학생들의 기호와 취미에 맞게 신청을 받아 수업을 운영했으면 하는 제안이 생긴다.

그러면 자연히 영상이나 영화 쪽으로 자신의 꿈과 진로를 생각하는 학생들이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리라 믿는다.

셋째,
영화 활용 교육의 특성에 맞춰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주어진 수업시간 외 특별한 이벤트를 자기 주도적으로 촬영해 본다거나, 그것과 관련 있는 스튜디오 견학을 하는 등 제한된 교실을 벗어나 할 수 있는 학습활동이 많이 있으므로 천편일률적인 교실수업을 지양하고 정말 자유학기제 취지에 맞는, 몸으로 부딪혀 체험함으로 얻어지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넷째,
학교 측에서 적절한 수업시간을 강사와 미리 상의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영화의 러닝타임이 상이하기 때문에 한 편의 영화 텍스트를 선정할 때 시간, 교육적 목표, 학습주제 등과 관련하여 적절한 자료를 선정하는데 꽤나 어려움을 겪는다. 부분적으로 편집해 영화를 보고자 해도 절절한 감상을 놓치기 쉽기에 강사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이번 학기에는 사진 한 컷, 하나의 시퀀스, 광고필름, 뮤직비디오, 단편영화 등으로 접근했고, 정말 전편을 보아야 하는 영화는 원작이 있는 작품으로 선정해 원작인 문학작품과 영화를 동시에 읽을 수 있도록 유도했지만, 기존 학교수업 2시간으로 본 수업시간을 배정하기엔 다소 적절치 않은 시간 배분이라 생각한다.

아쉬움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옥천이라는 소도시는 영화관도 없는 지역이라 영화 활용 수업이 생소할 수도 있었을텐데도, 영화라는 매체에 환호하던 학생들의 얼굴이 나에게는 힘이고 보람이었다. 개봉영화를 보려면 대전까지 나가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최근 개봉영화를 보고 와서 반짝이는 눈동자로 질문을 던지던 학생들의 모습이 대견했다. 다소 생소하기도 했겠지만 영화와 관련해 감상을 나누고 토론을 할 때, 전혀 생각지 못했던 참신한 의견을 말하던 몇몇 학생들이 놀라웠고 딴짓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영화와 관련된 주제를 잘 찾아내던 학생들이 미더웠다.

'교학상장(敎學相長)[1]'. 함께 영화 속 인물의 문제를 고민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들어보며 생각을 나누던 시간들이 나에게도 소중한 배움과 성장의 시간으로 남는다.

1) 가르침과 배움이 서로를 진보시켜 준다는 뜻.

[청년 대상-청춘내: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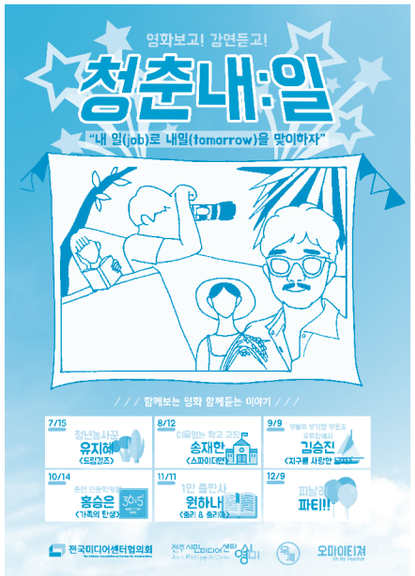
청춘 내 일(job)로 내일(tomorrow)을 맞이하라!

원민 (청년문화기획사 우깨)

일시 2016년 7월~11월 매달 1회 / 총 5회
장소 우깨팩토리
대상 청년
내용 영화상영 및 다양한 주제 강연

요즘 20대 청춘들은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이 힘들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대로 된 직장 하나 들어가기 힘들다. 그러다 보니 모두가 안정적인 직업을 꿈꾸게 됐고 그 덕분에 만들어진 '사회적 매뉴얼'은 많은 청춘들을 방황의 끝으로 몰고 갔다. 그 끝에서 청춘들은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헷갈리기 시작한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였다. 직업으로써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는 청춘들은 인생의 의미와 재미를 모두 잃어갔다.

필자는 청년문화기획사를 운영하는 업무적 특성상 수많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지만 공통적인 고민은 하나였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뭐 먹고 살지 모르겠어요." 높은 시험점수를 획득하는 방법만 알았던 청년들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모두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불행히도 취/창업 분야에서 단군 이래로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청년이 아닌가. 우리는 방법을 찾고 싶었다. 꽁꽁 얼어붙은 취/창업시장을 우리 힘으로 녹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새로운 관점이 생겼다. "자신만의 직업을 만들면 어떨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 말고 새로운 직업에 대해 조명하면 어떨까?" 그렇게 <청춘내:일>은 시작됐다.



처음 제안을 한 것은 전주시민미디어센터였다. 평소 청년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센터 담당자는 미디어를 활용해 청년들과 소통하고 싶어 했다.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앞에서 이야기했던 청년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진로고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싶어졌다. 우리는 먼저 어떠한 관점을 제시할까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 고민하고 이야기했다. 고민 끝에 어떠한 직업도 좋으니 스스로 하고 싶어서 지금의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기로 했다. 직업의 종류나 형태보다는 사람과 그 직업의 '본질'에 대해 들려주고 싶었다. 도통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모르는 청년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의 신념은 충분히 좋은 자극이 될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청년들 주변에는 학교나 기업이 나서서 수많은 강연회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이야기만 하는 강연형 프로그램은 도서관에서 토익 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청년들의 발걸음을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았다. 뭔가 새롭고 조금 더 구체적인 수단이 필요했다. 그렇게 '연사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인생영화를 함께 보고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다. 인생영화라면 지금 하는 일에 있어서 자극을 주거나 본인의 삶과 신념에 동력이 되는 그런 영화. 그런 영화를 함께 본다면 그 자체만으로 큰 메시지가 될 것 같았다.

그럼 누구를 무대에 올려야 할까?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줄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전주시민미디어센터 담당자와 가장 많이 고민하고 걱정했던 부분이었다. 변호사, 선생님, 공무원, 요리사 등 다양한 직업이 거론됐다. 그래도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남들과 조금 달라도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신념과 이야기가 필요했다. 그렇게 청년농사꾼, 비영리단체 설립자, 요트모험가, 청년활동가, 1인 출판사 대표까지 총 5명의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됐다.

연사들에게 자신의 인생영화를 추천해달라고 하니 대부분 당황해했다. 추천한 영화를 사람들에게 보여준다고 하니 부담스러워도 했다. 하지만 연사들은 모두 최선을 다해줬고 신중하게 영화를 선정해 주었다.

1회-청년농사꾼 유지혜 | <드림걸즈>

"땅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31세인 유지혜씨는 4년 차 농부이다. 딱딱하고 위계질서가 강한 직장은 지혜씨를 금방 지치게 했다. 그래도 성인으로서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 하루하루 참아가며 회사에 다녔지만 얼마 못 가 퇴사했다. 당장 어떤 일을 다시 시작할지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되돌아봤다. 아무래도 나만의 자유가 있고 복잡한 세상과는 조금 떨어져 살고 싶었다. 그렇게 고향인 전북 김제시로 돌아와 27세의 나이로 농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든

유지혜

송재한

것이 생소했지만 스스로 선택한 길이기에 더욱 잘 해내고 싶었다. 그렇게 지혜씨는 차근차근 농사를 지으며 삶을 개척해나가고 있다.

퇴사를 하고 시간이 남을 때 본 영화 <드림걸즈>가 삶에 작은 동력을 줬다고 한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씩 정진해 나가는 모습에 농사에 대한 꿈을 키워갔다고 전했다. "땅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라며, 가장 정직하게 내가 노력한 만큼 거둔다는 농사일을 통해 지혜씨는 앞으로 더욱 많은 청년들이 자신과 함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2회-'이름없는 학교' 교장 송재한 | <스파이더맨>

"우리 모두 슈퍼히어로가 될 수 있습니다."

송재한씨는 본래 사진작가이다. 하지만 '이름없는 학교'라는 비영리단체를 설립하여 가난하거나 장애가 있어서 꿈을 이루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상담과 직업 훈련을 통해 희망을 주고 있다. 평소 그의 삶은 굉장히 검소하다. 매일 같은 옷에 같은 스타일인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좀 꾸미고 다니라는 핀잔을 듣는다. 대부분의 수익을 청소년들을 위해 사용하기에 그의 삶은 항상 여유가 없다. 하지만 남다른 선행으로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리틀 히어로'라고 불리기도 한다. 요즘 같이 '먹고사니즘'이 중요한 시대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 것을 내놓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스파이더맨>의 주인공은 평소 굉장히 '찌질'하다. 제대로 된 직업도 없이 근근이 생활을 이어가고 친구들로부터는 항상 놀림을 당한다. 하지만 악의 무리가 나타나면 정의의 사도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생활밀착형 히어로다. 재한씨도 평소에는 평범하다 못해 조금은 부족해 보이지만 어려운 청소년들이 나타나면 히어로로 변신한다.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하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한다. "우리 모두 조금만 마음을 쓰면 스파이더맨처럼 히어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것은 내가 신경 쓸 바가 아니에요. 그저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달려가면 됩니다."

김승진

홍승은

3회-요트모험가 김승진 | <지구를 사랑한 남자>

"지구별을 맘껏 품으세요. 그럼 세상만사가 모두 쉽습니다."

김승진씨는 대한민국 최초로 무동력·무기항·무원조 요트 세계일주에 성공한 사람이다. 남다른 모험심으로 그 누구도 쉽게 해내지 못하는 세계일주를 해냈다. 소말리아 해적, 폭풍우, 식량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지만 그는 결국 해냈다. 그리고 항상 바다를 가슴에 품고 지구별을 여행하는 요트항해사로 남아있다. 요트를 타면서 직접 촬영한 다큐멘터리 <지구를 사랑한 남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구의 아름다움과 감동을 선물했다.

한국에 잠시 머물고 있는 승진씨는 이제 또 다른 여정을 준비 중이다. 여행만 다니면 생계 걱정은 안되냐는 질문에 승진씨는 이렇게 대답했다. "태평양 한 가운데를 떠다니며 자연을 마주치면 우리 인간이 정말 작은 존재라는 것을 느낍니다. 지구는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 그런 광대한 자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사소한 것, 앞만 보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멋진 자연을 품어보세요. 그럼 세상만사가 모두 쉽습니다."

4회-청년활동가 홍승은 | <완득이>

"상상하고 사랑하고 살아가고."

홍승은씨는 춘천에서 인문학카페 36.5를 운영하는 청년활동가이다. 대한민국의 사회문제를 자신만의 생각으로 밀도 있게 녹여낸 글과 책으로 전국의 청년들과 소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본주의적 제도에 반대하며 몇몇 친구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뤄 살아가고 있기도 하다. 자신의 욕구를 포기하며 사회활동을 이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좋은 사회를 상상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은 아직 대한민국은 밝다며 '헬조선'에 지친 청년들에게 생산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영화 <완득이>를 보며 홍승은씨는 자신의 삶과 많이 비슷하다고 했다. 세상에 등 돌린 소심한 반항아 '완득이'의 모습에서 본인의 모습이 짙게 묻어 나온다고 했다. "바뀔 수는 없어도 항상 기득권, 정해져 있는 틀에 완득이처럼 반항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좋은 방향으로 수정될 수 있는 첫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힘들죠. 그래서 더욱 사람들과 함께 상상하고 사랑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원하나

5회-1인 출판사 대표 원하나 | <줄리&줄리아>

"꾸준하게 만드는 스토리의 힘"

원하나씨는 1인 출판사 대표다. 1인 출판사라 하면 저자 섭외, 편집, 마케팅, 유통, 출판 등 1권의 책을 만드는 모든 과정을 전부 혼자 하는 것이다. 원래 직업은 잡지 기자였다. 하지만 불규칙한 기자생활이 맞지 않아 퇴사했고 출판사를 설립했다. 비록 출판사가 큰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는 기쁨만큼 큰 것은 없었다.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시작한 출판사가 어느덧 18권의 책을 냈고 그 어렵다는 사업을 4년째 이어가고 있다.

혼자 하는데 성장이 더디고 힘들지 않냐는 질문에 하나씨는 이렇게 답했다. "그저 꾸준하게 스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영화 <줄리&줄리아>의 주인공들처럼 말이죠. 별 볼 일 없지만 계속해서 올렸던 블로그가 어느덧 자신의 역사가 되고 재산이 됐잖아요? 제가 출판사를 시작할 때도 정말 작았거든요. 그런데 4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다양한 스토리를 엮고 책으로 냈더니 어느덧 18권의 자식 같은 책들이 생겼어요. 꾸준한 것만큼 강력하고 따라가기 힘든 것은 없습니다."

5회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신념과 이야기는 우리에게 생산적인 자극을 줬다. 참가자들은 회를 거듭할수록 늘어났고 한 달에 한 번 스스로를 되돌아봤다. 그동안 다양한 강연회가 있었지만, 영화를 통해서 더욱 밀도 있게 연사들의 메시지가 스며들었다고 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영회를 통해 더욱 많은 청춘들과 함께하며 성장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해본다.

[청년 대상-CINE DJ]

젊은이들과 <인사이드 아웃> 시간 갖기

김대겸 (서천군미디어문화센터)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 등에서 '겸이형'으로 활동도 하고 있는 크리에이터입니다.

일시 2016.6.25~8.13 / 총 8차시
장소 서천군미디어문화센터
대상 청년

내용 영화 감상 및 관련 라디오 제작 교육
강사 김대겸(서천군미디어문화센터)

하… 지역에 젊은이가 없구나

- 우여곡절 속 수강생 모집

서천에서 교육을 처음 시작하기 전 수강생을 모집할 때 극심한 고민에 빠졌다. 서천의 인구는 5만 6천여 명으로,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조그마한 시골 도시이다.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노인분들이고, 젊은이라고 하면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대부분이다. 지역에서 보기 힘든 청년들을 한 자리에 모을 기회를 만들고 싶었던 즈음, 'CINE DJ'라는 교육을 맡게 되었다. 음… 영화를 주제로 한 라디오 교육이라… 신선했다. 더구나 청년들이 흥미를 느끼고 접근하기 쉬워 보였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을 모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공고를 올리고 기다려도 역시 쉽게 모집되지 않았다. 마냥 기다려서는 모집하기 힘든 구조의 도시다. 청년들이 모일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 그래. 종교단체를 찾아가 보자. 필자의 종교가 기독교다 보니 교회 청년회에 접근해 홍보를 했고, 드디어, 서천읍내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다. 부목사님을 포함해서 3명의 청년이 지원했다. 앗싸!

이들도 나름의 고민이 있었다. 지역에서 자주 모이긴 하지만 소수 인원이어서 할 것도 제한적이고 뭔가 신선한 프로그램을 찾던 중이었다. 이렇게 서로의 니즈가 충족되면서 교육이 시작되었다.

발음 교정 테스트 시간
마이크를 통해 들리는
자신의 목소리는 역시 어색하다

엔지니어링 교육
수강생들의 참여가 상당히 적극적이다

듣는 것보다 직접 말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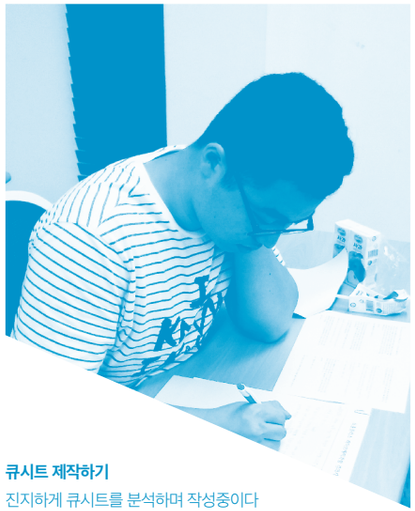
- 실습 위주의 커리큘럼과 교육 진행

라디오 수업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말하는 것을 좋아하거나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적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들 앞에서 지나치게 많은 설명과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방대한 지루함과 짜증을 선사하게 된다. 그러므로 수업은 최대한 실습 위주로 가야 한다!

첫날에는 간단히 영상자료와 함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고, 두 번째 수업부터 무작정 라디오 부스로 갔다. 우선 나도 수강생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해보고 싶었고 또 흥미를 불어 넣어주고 싶었다. 많이 해봤을 법한 발음 테스트와 발음 교정을 해봤다. 마이크를 켜고 헤드폰을 착용해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발음 교정을 하니 확실히 흥미가 올라가는 것이 보인다. 은근한 경쟁심도 눈에 띈다. 선의의 경쟁은 실력을 향상시킨다.

첫 번째 실습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잘했다. 그래서 세 번째 시간엔 바로 '10분 무작정 라디오 만들기'를 진행해보았다. 사전에 말하기 강조법만을 간단히 알려주고 시작하였는데, 짧은 시간 내에 생각보다 괜찮게 방송을 해내었다. 세 번째 수업까지는 강사인 내가 엔지니어링을 담당하였지만 네 번째 시간부터는 참여자들이 전반적인 라디오 시스템을 만질 수 있도록 했다. 엔지니어링 시간은 기계를 직접 만지고 자신들의 녹음 파일을 편집하면서 방송을 좀 더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 수강생들의 참여가 상당히 적극적이었다.

다섯 번째 수업은 방송을 만들기 위한 필수 교육인, 큐시트를 제작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자신이 원하는 영화를 미리 보고 오게끔 숙제를 내주고, 예시자료를 토대로 큐시트를 제작하게 하였다. 여섯 번째 수업은 쉬어가는 타임으로 영화를 봤다. 마지막 방송 때 다룰 영화를 선정한 뒤에 센터 내에 있는 작은영화관에서 다 같이 감상하고, 끝난 뒤에 간단히 토론



큐시트 제작하기
진지하게 큐시트를 분석하며 작성중이다

최종 방송 만들기
정말 준비를 많이 해 왔다

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화는 <인사이드 아웃>으로 선정했는데, 한 장소에서 다 같이 영화를 보는 시간을 통해서 서로 더 많이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마지막 두 개 차시에는 본격적으로 방송을 만들어 나갔다. 영화를 토대로 코너를 만들어보고 돌아가면서 진행을 해보면서 실전 훈련을 했다. 겨우 7주차 교육을 진행했는데 상당히 수준급이었고 더는 방송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마지막 8주차 때는 6차시 때 다 같이 봤던 영화 <인사이드 아웃>을 가지고 미리 코너를 짜고 방송 준비를 해서 라디오 진행을 했다. 참여자들이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해와서 감탄을 금치 못했다. 어디에라도 자랑하고 싶은 방송 결과물이 나왔다.

절대 주입시키지 말 것

라디오 교육, 미디어 교육에 있어서 기본적인 스킬과 이론은 알려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것들을 수강생들에게 주입하려 하면 안 된다. 영화를 토대로 자신들의 생각과 표현을 풀어나가는 것에 도움을 줄 뿐 틀을 만들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다. 잘못해서 그 틀을 형성해버리면 병 밖을 못 나가는 벼룩과 같은 교육생이 양성될 뿐이다. 이 점을 늘 주의하면서 교육을 진행했다.

새로운 시도, 새로운 도전

영화를 주제로 만드는 라디오. 이 방송을 지속해서 만들기 위해서 이들은 또다시 모이고 영화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이다. 새로운 영화는 늘 나오고 있고 방송을 위한 아이템도 다양할 것이다. 다만 필요한 것은 꾸준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열정을 가진 이들이 모이기 위해 시스템적인 지원책이 마련된다면 이러한 동아리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양질의 라디오 방송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방송들이 많아져 소통 공간이 많아지다 보면 지역 발전에도 긍정적인 바람이 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차시	주제	교육내용 및 활동	강의 공간
1	O.T 체험&동기부여	전체 프로그램 O.T 방송체험: 체험을 통한 소통의 즐거움 알기	미디어 강의실
2	발음 테스트	발음 테스트 직접 녹음을 진행해보면서 흥미 기르기	라디오 스튜디오
3	방송 제작의 이해	10분 무작정 라디오 만들기 : 대본작성 및 녹음	라디오 스튜디오
4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교육 진행 Sound Forge와 기계조작법 익히기	라디오 스튜디오
5	방송의 실제	큐시트 제작법 배우기	미디어 강의실
6	영화 선정 및 시청	교육생들이 원하는 영화 선정 후 시청, 토론하기	작은영화관
7	방송 제작 1	선정한 영화를 가지고 자신들만의 라디오 방송 만들기 준비 단계 코너 만들기	라디오 스튜디오
8	방송 제작 2 평가&향후계획	라디오 방송 만들기 : 마지막 방송 설문조사 등 전체 평가 향후 정규방송을 위한 영화음악 프로그램 제작동아리 활동 계획 수립	라디오 스튜디오

[성인 대상-무비트립, 낯선 나라에서]

영화를 통해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만나보는 상영회

박예솔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일시 2016년 5월~11월 첫째 주 토요일 / 총 7회
장소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대상 성인
내용 다양한 국가의 영화를 감상하고, 외부 전문가와 함께 토론을 진행하는 상영회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정기상영회 '무비트립, 낯선 나라에서'는 매달 첫 번째 토요일마다 다양한 영화를 보고 그 영화의 주요 배경이 되는 나라의 문화에 대해 게스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능동적인 상영프로그램이다.

기획 : '인천'에서 상영회 하기

처음에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았다.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다른 센터와 달리 자체 상영프로그램이 없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 2014년~2015년 약 2년간 상영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다. 인천이라는 지역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했다. 상대적으로 문화 활동이 활발한 수도권에 속하는 인천이라는 지역 특성상 이미 여러 곳에서 영화상영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남구 12개 작은도서관, 청소년 미디어센터 등에서 상영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단순한 영화감상 프로그램이었다. 그래서 센터에서는 좀 더 능동적인 프로그램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참여자가 함께할 수 있는 '상영+토론'의 콘셉트를 가져가고자 했다.

이런 기획 하에 2015년에 영화감상 후 게스트와 함께 인문학적 관점에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총 5회차의 프로그램 '영화, 사람에게 말을 걸다'를 진행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회를 거듭할수록 참여인원이 줄어들었다. 설문지를 취합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참여자들은 매 회차마다 같은 게스트에 싫증을 느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인천에는 상영프로그램이 넘쳐났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으면 참여자는 쉽게 떠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올해에는 매회 다른 게스트를 섭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보았다. 그리하여 다양한 나라의 영화 또는 배경이 돋보이는 영화를 선택하여, 각 회마다 그 나라에 관해 설명해 주실 교수님을 섭외하는 구상으로 '무비트립, 낯선 나라에서'를 기획했다.

프로그램 : 무비트립, 낯선 나라에서

처음에 이 프로그램의 콘셉트는 참여자들이 영화를 보면서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경험해보는, 마치 그 나라에 다녀온 듯한 기분이 들도록 하는 것이었다. 영화선정은 되도록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화 속 배경 국가가 겹치지 않게 선정하였다. 인도부터 세르비아, 호주 등 총 7개 국가의 영화를 상영하였다. 영화선정과 그에 따른 게스트 섭외를 인천시네마테크협회에서 진행해주었다. 처음에 게스트 섭외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 영화를 보고 그 국가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콘셉트인데, 영화에 대해 잘 알고,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도 잘 아는 분을 모시기는 하늘의 별따기였다. 고민 끝에 영화해설보다는 배경 국가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초기에 계획한 기획에 맞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게스트는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 잘 아는 교수님들을 모셨다. 직접 그 나라에 가본 경험이 있으시기도 해서 그 나라의 문화를 생생하게 이야기해주시고, 재밌었던 에피소드도 풀어 주셔서 참여자 반응도 좋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을 꼽자면, 11월 영화 <콜리야> 상영 후 한국외국어대학교 체코·슬로바키아어과 김규진 교수님이 게스트로 오셨는데, 토크 시간이 끝날 즈음에 '나의 피앙세'라고 소개를 하자 아내분이 나오셔서 노래를 불러주셨다. 성악을 정식으로 공부하시진 않았지만, 성악가처럼 체코의 민요를 불러주셨다. 계획되지 않은 돌발 상황에 놀라기도 했지만, 어느새 노래에 빠져들었다. 큰 스크린의 멋진 상영관은 아니었지만 참여자도 많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네트워크 : 인천시네마테크협회와 함께

상영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예술영화관인 <영화공간 주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천시네마테크협회'를 만나게 되었다. 인천시네마테크협회[1]는 정기적으로 다양성영화 평론집 발간사업과 정기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이다. 처음에 상영프로그램을 제안했을 때 시간이 빠듯하여 많은 논의를 할 수는 없었지만, 이미 자체적으로 상영회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서 큰 무리 없이 상영회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었다. 처음에 상영사업을 제안하는 첫 미팅 자리에서 딱딱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고민스러웠지만, 인천시네마테크협회에서 흔쾌히 게스트 섭외와 그에 따른 영화선택,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을 맡아주었다.

참여자 : 세대 공략하기

주안센터를 이용하는 연령대를 보자면 크게 청소년과 50대 이상의 어르신들로 나뉜다. 프로그램은 토요일에 진행하였는데, 토요일은 센터의 다른 청소년교육과 시간대가 겹치기 때문에 영화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실버분들에게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었다. 첫 회에 오신 분들 중에는 작년에 오셨던 분들도 계셨고, 미디어센터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다. 첫 회에는 많은 분이 오시지 않았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점점 많은 분이 참여해주셨다. 주변 분들에게 입소문을 내신 것인지, 몇 번 오셨던 분들은 지인 분들을 한두 분씩 꼭 데리고 오셨다. 참여자들에게 약간의 간식(팝콘, 생수)을 제공하였는데 이것 때문에 참여자가 늘었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영화관이 아닌 작은 강의실에서 팝콘을 먹으며 이야기 나누는 나름 아기자기한 상영회 분위기가 연출된 것도 어느 정도 한몫한 것 같다.

1) 인천시네마테크협회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icaofficialpage

상영공간 : 영화관이 아니라도 좋아

주안센터의 경우 2015년까지 <영화공간 주안>이라는 예술영화관의 한 관을 자체 상영관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이 상영관은 센터 내부 시사회 및 외부 대관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으로 인해(아마도 수익이 많지 않아서 아닐까 추측해본다) 올해부터 <영화공간 주안>으로 이관되면서 센터 자체 상영관이 없어졌다. 그래서 처음 상영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도 이 부분이 가장 신경 쓰였다. 센터가 아닌 다른 곳을 대관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할까, 찾아가는 상영회 콘셉트로 진행할까, 많은 고민을 하였다. 작년의 경우 <영화공간 주안>의 상영관이 너무 커서(150석), 적지 않은 인원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썰렁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게스트와 참여자 간의 공간이 넓은 데서 오는 거리감이 있었기에, 센터 내 강의실에서 오밀조밀 작게 하는 것이 더 좋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화면이 작아서 답답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작은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눠서 더 좋았다는 분들도 계셨다.

홍보 : 발로 뛰어야 제맛

많이 알려지지 않은 주안센터의 경우 홍보에 가장 큰 집중을 하였다. 사소하게는 엘리베이터에 웹 전단을 붙이는 것부터, 센터 홈페이지 회원 1,900여 명에게 메일링 및 문자발송까지. 수업 들으러 오시는 분들에게도 웹전단을 나눠드렸다. 처음에는 센터 홈페이지로 사전신청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실버분들이 많다 보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셔서 전화로 접수를 도와드렸다. 실버분들의 참여가 높은 프로그램이라면 온라인 방식보다는 오프라인 방식의 홍보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상영 공간(극장)이 없어도 상영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는 올해의 계기를 통해서 상영프로그램의 가능성을 보았다. 또한, 참여자 설문지에서 많이 나왔듯이 한 달에 한 번 상영이 아닌 격주나, 매주 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가득 찬 미디어센터가 되길 바란다. 더 나아가 이 상영사업을 통해 미디어센터가 더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지고, 주민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활발한 공간이 되기를 꿈꾸어본다.

날짜	영화명	강연 국가
5.7	<런치박스>(리테쉬 바트라, 2013)	인도
6.4	<침묵의 시선>(조슈아 오펜하이머, 2014)	인도네시아
7.2	<부에노스 아이레스 탱고카페>(미구엘 코한, 2008)	아르헨티나
8.6	<사파이어>(웨인 블레어, 2012)	호주
9.3	<노 맨스 랜드>(다니스 타노비치, 2001)	세르비아
10.1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빔 벤더스, 1999)	쿠바
11.5	<콜리야>(얀 스베라크, 1996)	체코

[성인/학부모 대상-엄마의 그림일기]

엄마의 그림일기

고정은
(예술의전당 어린이미술아카데미 강사, 통합예술심리행동재활사/미술치료사)

일시 2016년 9월~11월 / 총 8차시
장소 은평뉴타운미디어라이브러리센터
대상 학부모
내용 자녀교육 관련 이론강의 및 영화와 미술치료기법이 융합된 프로그램
강사 고정은(예술의전당 어린이미술아카데미 강사, 통합예술심리행동재활사/미술치료사)

웃는 아이 뒤에는 반드시 행복한 엄마가 있다.
지금 엄마인 나에게 남기는 이야기,
언젠가 부모가 될 내 아이에게 보내는 편지.

지금 엄마는 말이야…….

요즘은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을 소개하는 자녀 교육 관련 서적과 방송, 교육프로그램들이 넘쳐나고 있다. 그런데 그 모두의 종착역에는 완벽에 가까운 '엄마의 역할'이 자리 잡고 있다. 세상에 태어난 아이는 엄마를 통해 자신의 자아상을 만들어가며 세상과 조율하는 방법을 배우니 엄마라는 존재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나친 '엄마 책임론'은 아이의 부족한 점이 모두 엄마인 자신의 탓인 것으로 느껴지는 자책감을 느끼게 하고 오히려 좋은 엄마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도 생긴다.

필자는 이런 '엄마 책임론'에 지친 엄마들이 진정으로 마음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미술을 매개로 자녀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엄마의 미술카페'라는 티파티 형식의 엄마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었는데, 단순한 지식 전달식 강의로는 엄마들의 마음을 치유하기에 부족하다는 한계에 부딪혔다. 그러던 차에 몇 년 전부터 199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태동하고 발전하고 있는 다양한 트라우마 치료 기법들을 공부할 기회가 생겼다. 그 과정에서 필자는 지치고 상처받은 내면의 자신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통합하는 경험을 하였는데 이는 엄마로서의 자책감과 부담감의 굴레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렇게 해서 이 트라우마 기법들을 전체 골격으로 하고 그림과 짧은 이야기로 표현된 엄마 자신의 이야기를 바라보며 자녀 교육을 생각하는 '엄마의 그림일기' 프로그램이 기획되었다.

'엄마의 그림일기'는 인생의 성장과정의 단계마다 등장하는 큰 이슈들을 8개의 소주제로 정하고 각 단계별로 자녀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이론들과 트라우마 관련 이론들을 소개하고 있다. 1주와 8주차는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인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구성하고 2주~7주차까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주제를 나누었다. 영유아 시절의 엄마와의 애착 문제를 다루는 2주차를 지나 3주와 4주차는 엄마 곁을 떠나 학교라는 사회로 나가며 다양한 심리적 변화를 겪는 학창시절로 설정하여 아픔을 치유하는 트라우마 치료 기법들을 실습하고 표현하는 기회를 가졌다. 반항기로 구분할 수 있는 5주차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춘기의 분노와 육아에서 발생하는 엄마의 분노에 대해서, 그리고 6~7주차에서는 자녀가 성장하여 독립할 시기가 되었을 때 엄마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자 하였다. 강의의 형식은 매주 이론 강의를 듣고 그 주제와 관련된 미술치료 기법들을 참가자들이 직접 실습해보고 가능한 경우에는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금은 낯설고 어려운 심리치료 이론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강의 중간에 강의 주제와 연관된 영화의 장면들을 함께 감상하였다.

예를 들어, IFS(내적가족시스템) 트라우마 심리치료 기법을 소개하는 1주차의 경우 애니메이션 영화 <인사이드 아웃>(2015)을 선정하였는데, 영화 속 주인공 라일리의 머릿속에 등장하는 기쁨(joy)을 비롯한 5가지 감정들과 이 감정들이 라일리의 아픔을 해결해가는 과정은 IFS이론과 매우 유사하여 영화와 비교하는 이론 설명은 참가자들의 이해

를 돕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심리적 안전감을 부여하는 4가지 리소스(자원) 작업을 제시하는 3주차에는 영화 <슈퍼맨>(1979)에서 슈퍼맨이 고층 빌딩에서 떨어지는 여주인공을 구해내는 장면을 감상하며 리소스 중 '나를 지켜주는 대상'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6주차에는 두 편의 영화 <독수리 에디>(2016)와 <로렌조 오일>(1992)을 선택하였다. 세상 모두가 불가능하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믿어주며 포기하지 않는 영화 속 엄마들의 모습과 그 힘으로 이루어 낸 기적 같은 장면들이 모두 실화였다는 사실은 참가자들에게 '아이는 엄마의 믿음만큼 자란다'는 메시지를 백 마디 말보다 더욱 설득력 있고 감동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

본 프로그램의 마지막에는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간담회를 별도로 마련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과 개선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가장 많이 논의된 내용은 프로그램의 기간과 개인의 미술치료 실습 내용을 발표하는 문제였다. 필자의 예상과는 달리 8주라는 기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야 프로그램을 이해하게 되고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표현하고 싶어지니 정작 프로그램이 끝났다는 것이다. 또한, 각자의 그림 내용을 발표하는 문제는 필자도 프로그램 기획 단계부터 진행하는 내내 고민스러웠던 점이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대한 참여자들의 거부감과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깊은 트라우마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부담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미술 작업을 하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되는 것 같다며 실기 작업시간을 조금 더 충분히 갖고 발표로 마무리하기를 희망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해야겠지만 개인 사생활의 노출은 매우 민감한 부분이고 대상자들에 따라 견해 차이가 클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8주는 '엄마의 그림일기'가 각자의 삶에 따라 스스로 치유의 길을 찾아가는 참가자들에 의해 완성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감동의 시간이었다. 영화의 장면을 보거나 자신의 그림에 대해 발표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었고, 오랜 세월 미처 알지 못했던 트라우마를 찾아내고 강의 내용에 따라 극복하셨다는 분도 있었으며 자신이 그려낸 지난 시간을 담담하게 이야기하며 떠나보낸 분들도 있었다. 강의시간에 했던 미술치료 작업들을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분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 것을 보며 위로를 얻었다는 분도 있었다. 모두가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아이들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고 한다.

2~3분의 짧은 장면으로도 보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몰입할 수 있게 만드는 영화와 간단한 오려 붙이기와 평범한 손놀림만으로도 치유의 길로 안내하는 미술. 필자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이들 예술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을 지켜봤다. 우리의 인생에서 비록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얻더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했노라고 말해주는 트라우마 치료 기법들의 인간에 대한 무한한 신뢰는 참여자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남겼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변화해가는 살아있는 인간의 본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엄마의 그림 일기장이 펼쳐지고 몇 장이 기록되었다. 이제 그 일기장의 나머지 부분이 참가자 자신이 예술과 함께 하는 소소한 기억들로 채워지고 시간이 흐른 후 우리가 그것을 치유의 순간으로 읽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차시		교육내용 및 활동
옛날에는 엄마도 첫걸음마를 내딛기 위해서 큰 용기를 내야했던 어린 아가였고, 원하는 것이 있다고 떼를 쓰며 울었던 꼬마였단다.	1주차	**제목**	**"나는 ♡ 입니다." 나의 부분(part)과 만나기**
		영화	<인사이드 아웃>(2015)
		강의	IFS 이론의 부분들의 역할
		미술활동	지금의 나를 표현하는 이미지 찾기
	2주차	**제목**	**내 생애 첫 기억**
		영화	엄마가 떠올랐던 영화 찾기
		강의	대물림되는 애착문제
		미술활동	첫 기억 혹은 엄마를 대표하는 이미지 연상
교실에서 공부하다 말고 창 너머를 보며 미래를 꿈꿨던 학창시절을 보내기도,	3주차	**제목**	**나만의 비밀장소와 나의 영웅**
		영화	<슈퍼맨>(1979)
		강의	안전함 느끼기 - 4가지 Resource
		미술활동	쉬고 싶은 곳 & 보호자 찾기 콜라주
	4주차	**제목**	**Here & Now**
		영화	<어바웃 타임>(2013)
		강의	트라우마 치료기법의 기본원리
		미술활동	과거의 기억으로 미래를 재구성하다
이젠 세상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부모님께 반항하기도 했었지.	5주차	**제목**	**버럭이 잠재우기 프로젝트**
		영화	<인사이드 아웃>(2015)
		강의	사춘기 아이들의 뇌에서 무슨 일이?
		미술활동	분노조절 - 평온 만다라
결국 부모님을 떠나 생을 함께 할 짝꿍을 만나 새 보금자리를 만들었단다. 그리고 거기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랑스러운 너를 만났지…….	6주차	**제목**	**엄마의 믿음 막대기**
		영화	<독수리 에디>(2016), <로렌조 오일>(1992)
		강의	아이는 엄마의 믿음만큼 자라는 나무
		미술활동	가족화 그리기
	7주차	**제목**	**행복해지는 약 - 가족치료**
		영화	<맘마미아>(2008)
		강의	떠나보내는 숙명, 엄마는 베이스캠프다
		미술활동	엄마의 사랑과 격려가 담긴 캡슐 만들기
이 일기는 너와 똑같은 길을 먼저 걸어온 엄마의 평범한 이야기란다.	8주차	**제목**	**진정한 나를 찾는 여정: 나는 ooo입니다**
		영화	<강아지 똥>(2003)
		강의	자존감 - 행복한 엄마, 웃는 아이
		미술활동	내 마음의 보석상자를 만들기

078 일상의 특별한 순간, 수원사람들 영화제
084 앨리스와 친구들의 진주같은영화제

시민 프로그래머교육 +영화제

남이 고른 영화, 극장에 걸려있는 영화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대신,
자신이 원하는 영화를 스스로 골라 보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어떨까?
영화감상 워크숍부터 영화 프로그래밍, 영화제 운영에 이르기까지, 미디어센터에서 진행한
시민프로그래머 양성교육 과정과 '실전' 영화제까지의 현장을 들여다보자.

[수원영상미디어센터]

일상의 특별한 순간, 수원사람들 영화제

김하영 (시민프로그래머 교육 참여자)

[시민프로그래머 기초과정-영화감상 워크숍]

교육기간 2016.7.13~9.7
매주 수요일 19:00~22:00 / 총 9차시

모집대상 영화감상과 비평 및 시민프로그래머에 관심 있는 시민 등 15명 내외

내용 무비가이더(강사)가 주제 및 키워드, 감상영화 선정 / 영화감상 후 수다 진행 / 무비가이더와 함께 '나만의 영화 레시피' 운영 / 워크숍 과정을 담은 기록집 제작

강사 류승진(미디어교육 강사)

[시민프로그래머 입문과정]

교육기간 2016.9.28~10.26
매주 수요일 19:00~22:00 / 총 5차시

모집대상 성인 20명 내외

강사 배주연(前 KT&G상상마당 시네마 프로그래머 /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시민프로그래머 멘토링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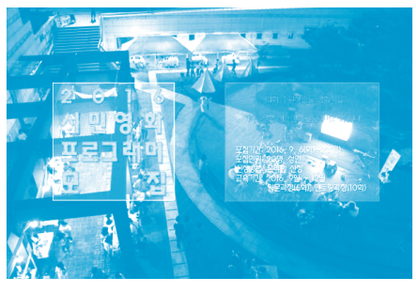
교육기간 2016.11.2~12.7
매주 수요일 19:00~22:00 / 영화제 3일 포함 총 10차시

모집대상 입문과정 수료자

강사 홍수영(前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인디다큐페스티발, 인디포럼 사무국장)

수원만의 특별했던 영화 축제가 지난 12월 5일 막을 내렸다. 바로 올해로 3회를 맞은 '수원사람들 영화제'이다.

넘쳐나는 영화제들 속에서 '수원사람들 영화제'가 차지하는 위치는 조금 독특하다. 무료입장, 무료상영이라는 점도 인상적이지만, 무엇보다 주목할 만



한 것은 시민들이 교육을 통해 직접 프로그래머로 참여해 만드는 영화제라는 사실이다. 더욱이 올해는 관객 수도 늘고, 시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도 이어져 작지만 알찬 영화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수원사람들 영화제'는 사실 규모나 역사에서 다른 영화제와 비교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좋은 영화제라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영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직접 고민하며 만든 영화제이기 때문이다. 너무 낭만적인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영화제에는 관객을 향한 순수한 진심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나 역시 '시민프로그래머' 중 한 명으로서 이번 행사에 참여하며 영화제가 지니는 의미와 가치에 대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

영화에 발을 들이다

시작은 작은 수다였다. 심심풀이 땅콩으로만 영화를 '소비'하는 것에 질린 어느 날, 우연히 검색하다 수원영상미디어센터에서 실시하는 '영화감상 워크숍-일상적 영화보기와 수다'를 알게 됐다. 매주 한 편씩 총 9편의 영화를 함께 관람하고, 둥그렇게 둘러앉아 영화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수업이었다. 초반에는 머쓱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영화에 대한 '수다'가 쏟아졌다. 다양한 사람들의 시선과 분석이 교차하며 매시간 한 가지 영화에서 갖가지 이야기가 만들어졌다. 홀로 보는 영화도 좋지만, 여러 사람과 보는 영화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다.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쉽게 느껴질 때쯤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영화제에 손을 대다

'영화감상 워크숍-일상적 영화보기와 수다'를 통해 영화에 대한 배경지식을 쌓고 더 많은 호기심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향한 곳은 '수원사람들 영화제' 준비를 위한 시민프로그래머 교육 과정이었다.

시민프로그래머 교육은 워크숍보다 긴 호흡이 필요했다. 그도 당연할 것이 이 교육의 최종 목적은 시민들이 직접 프로그래머로 나서 '수원사람들 영화제'를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입문과정'(5차시)을 통해서는 영화제의 구성과 운영 방식, 프로그래머가 지녀야 할 자질과 역할에 대해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바로 이어지는 '멘토링과정'(10차시)은 입문과정에서 배운 이론을 실전에 적용해 보는 활동이 주를 이뤘다. 두 과정의 멘토이신 배주연, 홍수영 강사님 모두 각종 영화제에서 프로그래머로 활동하신 만큼 우리 수강생들이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길을 잃을 때마다 훌륭한 균형추 역할을 해주셨다. 교육을 받는 내내 우리는 진심으로 행복했다. 영화를 통해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영화를 소개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했으니,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을까?

물론 모든 일이 그렇듯 영화제를 준비하는 과정이 내내 아름다웠던 것만은 아니다. 무엇보다 교육생들을 힘들게 한 것은 단순한 감상자에서 벗어나 프로그래머의 시선으로 영화를 바라보는 것이었다. 단순히 영화에 대한 호기심으로 교육을 신청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에 프로그래머의 일을 이해하고 실제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직접 발로 뛰고 공부해야 할 것이 많았다. '무엇이 좋은 영화일까'에서부터 '수원사람들 영화제의 정체성은 무엇인가'까지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영화제를 만들기 위해 매주 밤늦은 시간까지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그럼에도 행복한 시간이었다. 거리마다 포스터를 붙이며 홍보를 하고, 영화제를 더 빛나게 해줄 부대행사를 직접 기획하면서 우리는 모두 나이와 관계없이 '청춘'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정말 이 행사가 열릴 수는 있는 걸까?' 했던 마음은 점차 '꼭 좋은 영화제를 열어야겠다'는 책임감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드디어, 영화제의 막이 올랐다. 예상보다 많은 시민이 영화제를 찾아주셨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스크린을 바라보는 관객들의 표정이었다. 장르와 관계없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의 표정에는 모두 행복하고 만족할만한 미소가 깃들어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안식이 되는 영화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3일의 짧지만, 행복했던 시간이 저물었다.

모두의 영화제

'수원사람들 영화제'는 참 작다. 그러나 작기에 더 소중한 것들이 있다. 동네 사랑방에 모이듯 옹기종기 모여앉아 영화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도, 관객의 얼굴을 기억하고 반가워할 수 있는 것도, 시민들이 주최자와 참여자가 되어 영화제의 전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것도 모두 작기에 가능한 것이다. 누구나 편하게 즐기고 느낄 수 있는 것. 생각해보면 그것이 본래 영화의 매력이 아닐까? '수원사람들 영화제'는 그런 영화의 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영화제는 끝이 났지만, 나의 영화제는 계속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래머 교육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수확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영화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고르는 것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영화를 고르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그러나 그런 것을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나는 영화를 더 깊고 넓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영화제를 통해 이런 영화의 매력을 다양한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개인적인 바람도 가지게 됐다. 꼭 영화제의 형태가 아니어도 말이다. 꼭 큰 극장이 아니어도, 화려한 영화제가 아니어도 좋다. 우리의 일상에서 좀 더 자주, 그리고 편히 영화를 만날 수 있다면, 우리의 지루한 삶이 조금은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모든 사람의 삶에서 영화제가 열리는 그 순간까지, '수원사람들 영화제'는 계속될 것이다!

기초과정 커리큘럼

차시	날짜	구분	영화명	키워드	비고
1	7/13	무성영화시절 대표작	<키드>(1921) 찰리 채플린	한 감독의 중요한 영화는?	오리엔테이션
2	7/20	한국영화 데뷔작	<달은... 해가 꾸는 꿈>(1992) 박찬욱	데뷔작으로 재발견하기	레시피 이야기(1)
3	7/27	한국영화 데뷔작	<지구를 지켜라!>(2003) 장준환	비운의 천재 감독	
4	8/3	미국 독립영화 감독 데뷔작	<천국보다 낯선>(1983) 짐 자무시	익숙한 공간, 낯선 세계관	레시피 이야기(2)
5	8/10	미국 독립영화 감독 데뷔작	<브로큰 플라워>(2005) 짐 자무시	지난 시간들을 마주하기	
6	8/17	중국 5세대 감독의 변모	<붉은 수수밭>(1988) 장예모	지금 느끼는 자신의 '시대'	레시피 이야기(3)
7	8/24	중국 5세대 감독의 변모	<책상 서랍속 동화>(1999) 장예모	새로운 '시대'를 만날 때	
8	8/31	현재 한국 다큐의 계보 찾기	<가늘고 푸른선>(1988) 에롤 모리스	새로운 다큐멘터리의 출현	
9	9/7	현재 한국 다큐의 계보 찾기	<논픽션 다이어리>(2014) 정윤석	에롤 모리스에서 시작하기	레시피 제출, 회고

입문과정 커리큘럼

차시	날짜	교육내용 및 활동
1	9/28	1부. 오리엔테이션 및 자기소개 2부. 영화제에 대한 이해 : 영화제 종류 및 성격, 조직에 대한 이해
2	10/5	1부. 영화제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 2부. 키워드에 맞는 프로그램 기획해보기
3	10/12	영화제 진행에 대한 이해 : 팀별 업무 분담 및 기획, 진행
4	10/19	1부. 섹션 구성의 이해 2부. 시민 제작영상 감상
5	10/26	시민 제작영상 섹션 구성

멘토링과정 커리큘럼

차시	날짜	교육내용 및 활동
1	11/2	1. 영화제 방향성 논의 2. 기획, 상영작, 부대행사 논의 3. 영화제 기획서 작성
2	11/9	1. 상영작, 상영시간표 확정 2. 부대행사 1차 확정 3. 인쇄 홍보물 내용 점검 및 확정
3	11/16	1. 인쇄 홍보물 디자인 확정 2. 부대행사와 이벤트 2차 논의 3. 업무분장 및 담당자 선정 4. 홍보계획 수립
4	11/23	홍보 및 진행사항 점검
5	11/30	영화제 실행을 위한 시뮬레이션 및 총 점검
6	12/1	영화제 진행을 위한 물품 준비, 사전 세팅
7~9	12/2~4	제3회 수원사람들 영화제 운영
10	12/7	영화제 평가와 회고

[진주시민미디어센터]

앨리스와 친구들의 진주같은영화제

조정주 (진주시민미디어센터)

교육기간 2016.6.13~7.25
매주 월요일 19:30~21:30 / 총 5차시
영화제기간 2016.9.8~9.10
모집대상 영화제와 프로그래밍에 관심 있는 지역민
내용 진주 및 서부경남 지역민 대상 시민프로그래머 양성과정 프로그램/진주같은영화제 기획
강사 조정주(진주시민미디어센터 사무국장), 손민식(부산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

한 해 계획을 세우는 워크숍에서 진주같은영화제는 핫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진주시민미디어센터가 진행하는 사업 중 큰 단위의 사업이고, 구성원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이라서요. 그런 만큼 회의 열기도 뜨겁습니다. 이 부분은 좋았으니 이렇게 더 키워보자, 저 부분은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 내년에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등등……. 활동가 각자의 평가와 주변의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 영화제의 큰 그림을 그려갑니다. 8회 정도 하다 보면 후다닥 진행될 법도 한데 매년 열정적인 회의가 진행됩니다. 그렇게 모두의 기운을 그러모아 우리는 2016년 제9회 진주같은영화제를 기획했습니다.

함께라 더 좋은 우리들의 티파티

올해 영화제 포인트 중 하나가 시민프로그래머 양성과정이었습니다. 지난해 처음 시작한 시민프로그래머 양성과정이 진주같은영화제에 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독립영화와 영화제에 관심 있는 지역민을 발굴하는 성과를 보였거든요. 미디어센터와 인디씨네 놀이터[1]를 꾸준히 사랑해주는 분들에게 즐거운 경험을 선물하자!는 마음으로 다시 기획하게 되었죠.

1) 독립영상에 관심 있는 지역민들이 진주시민미디어센터 정기상영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진주시민미디어센터 상영관인 '인디씨네' 상영작과 관련한 부대행사를 지역민이 직접 기획, 홍보, 진행, 참여하는 프로그램.

영화제에 대해 이해하고 나서는 상영작 선정 과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참여자들이 따로 시간을 내기 힘든 관계로 되도록 수업 시간에 함께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도 시간 제약이 있어 장편 공모작을 비롯해 단편 몇 작품은 각자가 시간을 내서 봐야 했어요. 공모작 관람 전에 사전에 고민해야 할 지점들을 공유하여 모두 집중해서 한 작품 한 작품 관람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참여자들의 의견과 영화제의 방향, 영화의 작품성, 지역성, 시의성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상영작을 결정했습니다. 어떤 영화들을 한 섹션으로 상영하면 좋을지, 어떤 타임에 상영할지도 다 같이 결정했어요. '영화 보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다'는 한숨 같은 농담이 오가는 뜨거운 시간이었죠. 그 과정을 거쳐 총 9편의 지역 단편, 1편의 지역 장편의 상영이 결정되었습니다.

시민프로그래머의 활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역 장편 <프레스:Press> 상영 때 참여자

황혜숙님이 모더레이터로 참여해주셨거든요. 감독과의 대화 진행은 처음이라며 긴장하셨어요. 그래도 사전에 영화제 담당 선생님과 같이 준비하고, 상영 전 감독님과 미리 이야기 나누면서 찬찬히 준비를 했고, 우리는 무사히 감독과의 대화를 치러냈습니다. 지역민이 지역 영화를 보고 감독과의 대화를 진행하다니! 이보다 더 멋질 수는 없죠!

토끼굴로 뛰어들다

그래요, 이보다 더 멋질 수는 없죠. 하지만 그 아름답고 우아한 백조도 물 아래서 열심히 발을 젓고 있다잖아요? 시민프로그래머 과정을 영화제까지 성공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미디어센터는 그 여름부터 열심히 발을 굴렀습니다.

참여자 모집부터 난관이었습니다. 전체 공지를 돌리고, 오프라인 홍보처에 홍보물을 비치하고 관심 있어 하는 분들께 따로 연락도 드렸지만, 교육 신청은 들어오지 않고……. 결국 수업 시작 직전까지 추가 모집을 진행해 간신히 6명의 참여자를 모집했습니다. 우연하게도 모두 여성으로 구성되었어요. 10대 학생부터 40대 선생님까지 다채로운 참여자들과 함께 단출하지만 단단하게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수업일에 한 분 빼고 모두 결석하셨지만, 뭐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꼭 한 번은 있는 '우연의 날'이니 괜찮아요. 영화제 모더레이터를 권유 드렸을 때 모두 못 하겠다며 손사래 치셨지만, 설득과 설득을 거듭해 한 분을 모셨으니 그것도 괜찮아요. 계획대로 되지 않는 프로그램은 사업 진행의 필수 요소 아니겠어요?!

사실 이렇게 진행된 데는 일정상의 문제가 컸습니다. 9월로 계획된 영화제 준비가 생각보다 늦어져서 일정 전체가 빡빡하게 진행되었거든요. 참여자들이 모두 일정이 있는 날은 하루 쉬고 다음에 진행해도 되는데, 프로그래머 일정이 늦어지면 상영작 선정이 늦어지고, 그러면 공지와 감독 섭외, 홍보자료 제작 등등이 늦어지는 도미노 현상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준비하면 될 것을……. 수업에 오지 못해 아쉬워하는 참여자들의 연락을 받고 센터도 죄송했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열 번째 티파티

우야든동 열심히 발을 굴러 진주같은영화제를 무사히 치러냈습니다. 감사 인사도 전하고 내부 평가도 진행했더니 어느새 연말이네요. 내년 달력을 앞에 두고 단단하게 준비해 여유 있게 진행하리라 마음먹어 봅니다.

2017년은 진주같은영화제가 10살 되는 해입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인데, 진주같은영화제는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지 벌써부터 고민이네요. 시민프로그래머 양성과정을 계속 진행할지, 진행한다면 참여자 모집은 어떻게 해결할지, 영화제의 어느 부분까지 함께 하게 될지 우리는 또 뜨겁게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곁에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열심히 준비해서 예쁜 초대장을 보내드릴게요. 더 즐거워질, 더 많은 사람이 함께하게 될 우리의 티파티 초대장을요.

미디어센터 +상영관

미디어센터에 있어서 상영관은 단순히 영화를 상영하는 것을 넘어서 영화를 매개로
지역민들이 소통하고 서로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공적 장소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러한 가치를 지향하고 지켜내고자 지역의 폐관된 극장을 되살리고,
미디어센터 상영관을 새로이 탈바꿈하는 시도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원주 아카데미극장]

090 C도로-Cinema Road

093 원주 단관극장의 풍경들 그리고 추억

[인디플러스천안]

097 천안에 indie를 더+하다

[원주 아카데미극장 ①]

C도로-
Cinema Road

변해원 (원주영상미디어센터)

2015년 12월 문화극장이 철거되었습니다

서울 세종로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부산 광복동 극장도 아닙니다. 강원도 작은 도시에 있던 문화극장요. 원주극장, 시공관, 아카데미극장에 이어 세워졌던 원주의 막내 극장이죠. 원주는 군사도시이기도 해서 군인극장도 있었습니다. 원주영상미디어센터 모두극장이 있는 자리입니다.

1960년대 이후 40여 년 영화榮華를 누리던 극장들은 2006년 멀티플렉스 극장이 들어서며 일제히 문을 닫고 하나둘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작년 문화극장이 철거되고 원주시민들은 온오프라인으로 많은 아쉬움을 나눴죠. "태어나서 첫 영화 본 곳이 철거되니 아쉽네", "이럴 수가ㅠㅠ 나의 첫 해리포터는 여기였는데 ㅠㅠ"

아쉬움은 사람들을 끌어모아, 마지막으로 남은 아카데미극장을 보전하자며 첩보!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팔린다는 이야기가 있다.', '철거하려면 시청에 신고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서로가 가진 소문과 지식을 나누고 기지와 실천력으로 시민들의 의사를 표현해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원주도시재생연구회와 원주영상미디어센터가 일을 조금씩 준비하는 동안 시의회 용정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아카데미극장이 보전되는 것뿐 아니라 원주에 필요한 문화시설로 재탄생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원주권 언론들이 일제히 주요한 기사로 다뤄줘서 시청에서도 기본 조사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죠.

문화극장

아카데미로의 초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면서 원주시민들은 정말 아카데미극장이 보전되기 원하는 걸까 확인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온라인 설문을 간단히 만들었습니다. 보전 여부와 활용방안을 묻는 설문조사에 열흘 조금 넘는 기간 동안 1천2백여 시민이 답해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중 88%의 시민이 보전되어야 한다고 답했고 공연장 등 문화시설로 재탄생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오래된 건물이니 보기 흉하다며 철거하자는 의견을 주셨지만, 재생연구회와 원주센터는 이 정도면 원주시민 대부분이 원하는 일이다, 해봐야겠다 싶어졌죠. 지역 여론을 이끄는 분들을 모시고 아카데미극장 보전과 활용이 구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분명히! 된다는 포럼을 진행하며 여론을 모아갔습니다. 그리고 7월 14일 시민들과 함께 아카데미극장 보전을 위한 행사 '아카데미로의 초대'를 열었습니다. 5일장(원주 너무 촌인 거 같나요ㅋ)에 맞춰 전단을 돌린 덕분인지 연세 있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셨습니다. 전자음악과 가야금 연주도 듣고 <로마의 휴일> 상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여름밤 맥주 마시며 오래된 영화를 보는 시간은 괜찮았습니다. 모두 웃으며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리 변한 건 없었습니다. 시에서 아카데미극장을 둘러본 후 극장 문은 굳게 닫혔고 진공상태에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재생연구회와 나눴던 사업평가에서 '아카데미로의 초대'를 지속적인 행사로 열자고 결론 내렸기 때문에 두 번째 행사는 '기억과 미래'라는 주제로 열기로 했습니다. 아카데미극장 간판 장인에 대한 기억과 원주 음악인이 상상하는 아카데미극장의 미래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홍보가 늦어 그리 많은 분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이 일이 의미 있는 일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A, B, C도로

원주 한가운데 구도심을 가르는 도로 세 개가 있습니다. 한국전쟁 후 폐허가 된 자리에 미군은 불도저로 도로를 만들고 이름을 붙였죠. A도로, B도로, C도로. 아직 원주시민들은 그렇게 편하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군인극장만 조금 떨어져 있었고 원주의 극장들은 모두 C도로에 쭉 늘어서 있었죠. 원주시민들과 원주센터는 서울영상미디어센터와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의 지원을 받아 원주 단관극장들에 관한 다큐멘터리 <C도로 Cinema Road>를 찍고 있습니다. 옛날 자료가 너무 없어 시민들께 원주 단관극장에 대한 자료를 모으자고 부탁도 드리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카데미극장이 팔릴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끝은 철거로 끝날지도 모른다며 스탭들끼리 웃기도 합니다. 우선은 시청이 매입할 수 있도록, 공공의 자산으로 다시 자리매김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시간을 두고 시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 원주에 필요한 곳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단관극장 보전, 도시재생, 마을 만들기 등 아직은 시민들에게 낯선 이야기일 수 있지만 조금씩 귀 기울이는 것은 그러한 일이 필요한 때가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응원을 기다립니다.

* <아카데미로의 초대>는 영화진흥위원회 서울영상미디어센터와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이뤄질 수 있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원주 아카데미극장 ②]

원주 단관극장의 풍경들 그리고 추억

박혜림, 김정승 (영화 <C도로 Cinema Road> 작가)

박혜림

극장 외관엔 붓으로 그린 커다란 그림이 걸려있다. 극장에 들어서면 눈앞에서 영화 속 인물들이 사랑하고, 싸우고, 때론 하늘을 날기도 한다. 음악이 마음을 더욱 고조시킨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다.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즐거움과 감동을 품고 집으로 돌아간다. 옛날 극장의 풍경이다. 과거 극장은 새로운 것을 보는 장소였다. 그곳에 그림이 있었고, 이야기가 있었고, 음악이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화를 보러 갈 때 '극장 구경'이란 말을 자주 썼다. 그곳에는 언제나 새롭고 즐거운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줄을 서서 표를 사고, 사랑하는 이와 함께 극장을 찾았다. TV와 비디오가 보급되기 전까지 극장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다.

2006년, 원주시에도 멀티플렉스 상영관이 들어섰고, 사람들은 그곳으로 발길을 돌렸다. 단관극장을 찾는 사람들은 줄었고 극장들은 줄줄이 문을 닫았다. 원주 시내 5개의 극장 중 4개의 극장이 차례로 허물어졌다. 이제 아카데미극장만이 유일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사람들은 차례로 허물어지는 극장 건물들을 보며 그곳에 우리들의 기억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카데미극장은 53년간 그 자리에서 원주 시민들과 함께해온 건물이다. 오래된 건물은 도시의 역사를 품는다. 그리고 그곳이 사람들이 사랑했던 극장이라면 더욱 많은 추억과

역사를 품고 있을 것이다. 데이트하던 커플들의 사랑의 속삭임, 오래된 냄새가 밴 좌석 시트, 극장에서 풍겨오는 팝콘 냄새, 짙은 담배 냄새까지. 지나고 보니 모든 게 추억이다. 극장은 시민 한 명 한 명의 그리운 추억이 담긴 장소이며 도시의 기억이다.

하지만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극장은 아무것도 아니다. 폐관된 아카데미극장에는 먼지만이 켜켜이 쌓여있다. 단관극장들이 쇠락의 길로 접어들면서 원도심[1]을 찾는 사람들도 눈에 띄게 줄었다. 이제는 5일장이 아니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다. 우리는 아카데미극장의 새로운 쓸모를 꿈꾼다. 원주의 역사를 함께 해온 아카데미극장의 기억이 다음 세대에도 계속 이어지면 좋겠다. 그곳은 새롭게 극장이 될 수도 있고, 시민들의 문화공간이 될 수도 있다. 어떤 모습이 되든 먼지 쌓인 지금의 아카데미극장에서 새로운 것을 보고 싶다.

극장에 다시 불이 켜진다. 음악이 들려오고, 누군가는 춤을 추고, 어떤 이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연기를 한다. 아카데미극장이 과거 즐거운 것들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것처럼, 다음 세대에게도 함께 모여 새로운 추억을 쌓아나갈 수 있는 장소가 되면 좋겠다.

1) 신도심(新都心)과 대조되는 용어로 예전에 부흥했던 도심이라는 뜻.

김정승

요즘만큼 영화를 쉽게 볼 수 있는 때가 없었다. 내가 사는 원주 곳곳의 멀티플렉스에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영화를 보고 싶다면 심지어 방구석도 편안한 극장이 된다. 불법 다운을 받든, IPTV에서 천원을 결제하고 보든 모든 게 너무 편하다. 그래서 요즘엔 예전만큼 영화라는 매체가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IPTV로 명작이라는 <세븐>을 보다가 살짝 지루해져 끄고, 이어서 무한도전 재방송을 보고, 그러다 갑자기 'Let It Go'가 듣고 싶어서 <겨울왕국>을 튼다. 영화 보기가 TV채널 돌리는 것처럼 쉬워져서 그만큼 영화에 열중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문득 어릴 적 생각이 난다. 일주일에 한 번, 비디오가게 애니메이션 코너 앞에서 이번엔 무슨 영화를 볼까 한참을 서성였다. 그 당시의 나에겐 영화관이란 것이 생소한 장소였다. 가끔 부모님 손을 잡고 원도심의 단관극장인 시공관, 아카데미극장을 두세 번 방문한 정도였을까. 부모님이 영화관에 자주 데려가 주지 않아서 아쉬웠다. 나도 어릴 때부터 무던히 영화를 좋아했나 보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땐 무슨 영화를 보러 가도 재밌게 봤던 것 같다. 뚱한 표정의 매표소 아주머니에게 표를 끊고, 암막 커튼 사이로 상영관에 들어갔던 것들이 그 당시 나에겐 매우 신기한 경험이었다.

하지만 나는 원주시 단관극장들의 막바지를 아주 조금 맛봤을 뿐이다. 원주 시내의 단관극장들은 2006년 모두 문을 닫게 되기 전까지 장장 반세기 동안 원주 시민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즐거움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했다. 1956년 조금은 늦게 등장한 원주 최초의 극장인 군인극장을 시작으로 원주극장, 시공관, 아카데미극장, 문화극장 모두 원도심의 C도로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원주 사람들은 영화를 보기 위해 시내로 향했다. 그 당시 극장은 원주 시민들에게 얼마 없는 큰 즐길 거리 중 하나였다. 하지만 2005년 원주 단구동에 메이저 멀티플렉스 중 하나인 롯데시네마가 등장하면서 단관극장들은 거짓말처럼 모두 문을 닫게 되

었다. 하긴 오래되어 냄새 나고, 영화도 한 번에 한 가지밖에 틀지 못하는 단관극장이 달콤한 팝콘 냄새가 가득한 세련된 멀티플렉스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영화를 즐기러 C도로에 가는 사람은 없다.

폐쇄된 극장 건물들은 '실용성' 있는 주차장, 모델하우스 등으로 탈바꿈하였고 유일하게 건물이 남아 있는 아카데미극장은 2006년부터 시간이 정지한 채로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다. 칠이 다 벗겨진 극장 건물에 이젠 간판마저 떼어져서 여기가 어떤 곳이었는지 겨우 짐작만 할 따름이다. 한때 사람들의 주요 '행선지'였던 단관극장들은 이제 없다. 마치 자연의 섭리가 그러하다는 듯 과거의 뒤안길로 사라진 듯하다.

'사람이 미래다'라는 광고 문구를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물론 광고 문구로서 이 말의 뜻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사람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어떻게 읽으면 사람이 미래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하다. 맞는 말이다. 물론 우리는 미래를 추구하고 발전을 추구한다. 하지만 우리의 존재는 새로운 미래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현재에 얽매여 있고, 우리의 의식은 지금까지 쌓아온 무수히 많은 과거의 중첩이다. 우리는 우리가 겪은 방식대로 세상을 인식한다.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했던 기억들이 각자에겐 미래만큼이나 소중한 것이다.

원주를 같이 살아온 많은 시민들의 기억 속에는 C도로의 단관극장들이 있다. 엄청난 일이다. 원주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추억이자 문화인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기억은 원주라는 지역 고유의 기억이 된다. 아카데미극장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났던 기억, 문화극장의 주변 풍경 등 원주가 아니면 절대로 공유할 수 없는 추억들이기 때문이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 먼지가 쌓인 아카데미극장은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아카데미극장은 원주만의 이야기를 가진 건물이고, 원주 사람들만의 것이다. 이젠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만의 문화유산을 지키고 사용해야 한다. '사람은 미래다.' 미래를 직접 만들어나갈 수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추억을 과거만으로 지나쳐 보내지 않고 미래로 다시 창조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시간의 흐름으로 자연스레 끊긴 발걸음이라면 우리 힘으로 C도로에 새로운 '행선지'를 만들어 가고 싶다.

[인디플러스천안]

천안에 indie를 더+하다

곽태형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2008년 9월 개관한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비채는 70석 규모의 상영관을 가지고 있어 시민들에게 다양한 무료 기획전을 진행해왔다. 어느덧 햇수로 8년 차에 접어들고, 지역에서도 상영관으로서의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자, 비채는 새로운 변화를 준비했다. '독립영화전용관', 또 다른 이름 "인디플러스천안". 비채는 왜 독립영화전용관을 택했을까?

비채는 국내·외 다양한 영화들로 정기상영과 기획전을 운영해왔다. 그중에서도 비채가 가장 주력한 테마는 고전영화, 독립영화, 다양성 영화 등이었다. 멀티플렉스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영화들을 지역에서 상영하는 일이 비채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상업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의 반응이 처음부터 좋았던 건 아니다. 어떨 땐 난해하고, 낯선 영화들을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사실 CGV나 롯데시네마에서 못 본 상업영화들을 비채에서 틀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컸죠. 사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다 보면 낯선 영화들도 있어서 적응하는데 꽤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 비채 회원 중

실제로 설문조사를 할 때마다 상업영화의 비율을 높여달라는 의견이 해마다 있었다. 하지만 비채는

천안여성영화제를 비롯해 다양한 특별기획전들을 선보이면서 그 격차를 줄여나갔다. 분기별에서 매월, 매월에서 매주로 관람객들에게 서서히 독립영화를 보여주는 횟수를 늘리니, 반응은 달라졌다.

"비채에서는 뭔가 다른 영화를 틀어서 일부러 찾아와요. 상업영화는 솔직히 어딜 가나 볼 수 있으니까."

'독립영화전용관'이라는 낯선 이름을 받아들일 준비가 끝난 것이다.

작은 소리부터 시작하자

천안에는 사회단체들이 많다. 크고 작은 취미활동 모임들도 상당하다. 또한, 2016년 3월 집계된 바로는 천안의 평균 연령이 36.2세로 다른 충남 지역보다 5~10살가량 젊다. 이는 대학생을 비롯해 다문화가정, 젊은 부부들의 이주가 몇 년 사이 부쩍 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천안의 지역적 특색은 그간 비채 운영에도 크고 작은 영향을 미쳤다. 공동체들을 위한 미디어교육, 제작지원 등이 해마다 이루어졌고, 특히 몇 해 전부터는 천안여성영화제를 뜻이 맞는 지역의 공동체와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렇게 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비채 상영관이나 공간들을 빌려 자체적으로 영화 관람과 비평회를 하는 일은 자주 있었다.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의 영상제작 활동을 비채가 지원하고, 그들의 작품으로 매년 상영회를 여는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 비채가 독립영화전용관을 해야겠다고 다짐한 데는 이러한 공동체와 영상제작 활동을 하는 시민들의 열정이 한몫 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2016년에는 천안 곳곳에 흩어져있는 영화를 사랑하는 개개인분들이 '영화왔수다' 라는 동아리를 결성하여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다. 영화 감상과 토론은 기본, 타 지역 영화제 탐방과 시민프로그래머로서의 교육까지 숨 가쁜 한 해를 달려왔다. 이들은 천안여성영화제에서 모더레이터, 영화 해설가로 역할을 해냄으로써 현장에서의 경험까지 길렀다. 앞으로의 인디플러스천안을 이끌어나갈 시민 주역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터. 실제 대구 오오극장[1]에서는 시민이 프로그래밍과 모더레이터를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인디플러스천안의 내일도 이러한 모습을 기대해본다.

우리가 꿈꾸는 인디플러스+ 천안

사실 앞서 우리가 꿈꾸는 인디플러스천안에 대해 거의 얘기를 마쳤다. 하지만 시민들, 관객들이 꿈꾸는 인디플러스천안은 어떤 모습일까? 비채에서 지원받은 미래 영화인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인디플러스천안에서 개봉하게 되면 어떨까? 마을공동체들의 목소리가 담긴 콘텐츠들을 인디플러스천안에서 발표하게 된다면? 독립영화 감독을 초청하여 신랄하게 몇 시간이고 영화에 대해 논해보는 건? 지역의 스토리와 문제가 실린 영화를 다 같이 감상해보는 건?

아마 어떤 것이든 관객과 가까이서 소통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국의 모든 독립영화전용관들은 긍정하고 있을 거로 생각한다. 인디플러스천안 또한 조금 낯설지만 우리 삶을 가까이서 보고 느낄 수 있는 작품들로 앞으로 끊임없이 마주할 계획이다.

독립영화전용관 인디플러스 천안

[독립영화전용관 인디플러스천안 설립과정]

2016년 5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2016년 지역 독립영화전용관설립지원> 사업이 공고되었고 비채는 기존 설립 시 구축된 시설, 장비와 향후 사업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에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독립영화전용관을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갖춰야 하는데, 비채는 영진위의 공모 요강을 참고하여 우선 영화신고업, 영화상영관등록을 먼저 진행하였고 영화상영관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자 전기, 소방(다중이용시설), 화재보험, 학교위생정화구역 적용 여부 등 행정행위와 관련 공사를 병행하였다.

이후 영진위로부터 현장 및 인터뷰심사를 거쳐 7월에 최종 선정되었고 이후 구축 관련 DCP 장비 구매, 인테리어(시설정비), CI·BI 개발, 간판설치를 진행과 동시에 운영 관련 선행기관 벤치마킹을 통해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전송사업자(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연동)선정, 발권대행협의, 인력채용(영사기사, 프로그래머) 등을 진행하였다.

지역미디어센터가 그러하듯이 독립영화전용관 역시 지리적 및 운영주체의 특성이 다르기에 비채도 위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2016년도 내 운영을 목표로 구축 관련 장비들에 대한 테스트와 운영 관련 영화수급 및 계약, 부금정산, 상영일정, 이용요금책정, 홍보 등을 동시에 진행하여 11월 25일부터 약 2달간 시범운영을 시작하였다.

1) 오오극장은 대구 최초의 독립영화전용관이며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최초로 설립된 독립영화전용관이다. http://55cine.com/

102 2016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상영스태프 워크숍

미디어센터 +스태프

앞서 소개한 많은 프로그램들 뒤에는 미디어센터 스태프들의 땀과 노력이 묻어있다.
다양한 지역과 프로그램만큼이나 각각의 미디어센터의 상황들이 다 다르지만,
비슷한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이것들을 프로그램으로 녹여내고자 동분서주하고 있다.

2016년 10월 13일, 부산 감천문화마을, 파란 하늘 아래 반가운 얼굴들이 모였다.
<2016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상영스태프 워크숍>이 있었기 때문이다.
1박 2일간의 함께 배우고, 북돋고, 위로했던 시간을 짧게나마 전해본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상영스태프 워크숍]

사람을 잇고 마음을 잇고, 2016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상영스태프 워크숍

김진숙, 김예은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10월 13일~14일, 부산감천문화마을에서 <2016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상영스태프 워크숍>이 열렸다. 부산 감천문화마을은 소위 '달동네'라 불리는 낙후된 지역을 지자체와 주민들이 힘을 합쳐 사람들의 발길이 닿는 곳으로 탈바꿈시킨 의미 있는 마을이다. 공동체 가치를 무엇보다 '중허게' 여기는 우리이지 않은가! 그래, 올해는 여기다!

궁금한 게 많다, 일단 모여보자!

상영활동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그 속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센터 담당자들은 아직 궁금한 게 많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가? 다른 센터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 센터를 지원하고 있는 전미협 역시 각 센터의 상황은 어떠하고 담당자들은 어떤 고민들을 갖고 있는지 궁금한 게 많다. 이러한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1박 2일간의 상영스태프 워크숍을 만들었다.

그간 여러 루트를 통해 센터 스태프가 만나고 교류하는 자리는 있어왔지만, 상영활동 담당자만을 위한 워크숍은 작년이 처음이었다. 2015년 워크숍은 일본의 마을극장 '덴게키 키네마토론'을 소개하는 <미디어스코프>(Vol.14) 기사[1]에서 시작했다. 오사카 도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한 마을에 주민들이 직접 만든 마을극장이 있고, 이곳에서 주로 '자주적으로 제작된 영화'를 상영한다는 내용이었다. 이거다! 이렇게 해서 아망토 마을의 '덴게키 극장'과, 관객이 중심이 되어 공동체 상영을 진행하고 있는 부산의 '모퉁이극장'의 운영사례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다. 각각의 사례발표에 더해, 일본 히로시마현의 작은 섬마을 무카이시마에서 제작된 <슈퍼 로컬 히어로>라는 영화도 함께 보면서, 공동체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올해 두 번째 상영스태프 워크숍. 처음 준비했던 작년과는 달리, 올해는 연초부터 고민이 많았다. 각 센터의 상황들이 다르고 그에 따라 센터 스태프들의 필요나 요구가 각기 다른데, 이것들을 어떻게 모아 1박 2일의 프로그램으로 녹여낼 것인가. 그리고 바빠서 혹은 별로 관심이 없어서 워크숍을 '외면'할지도 모르는 스태프들을 어떻게 꼬실 수 있을까 하는 고민까지. 각 센터의 상영 담당자들과 공동기획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테지만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라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받

1) <미디어스코프>는 전국의 미디어센터 활동과 소식을 전하는 웹진으로, 서울영상미디어센터에서 발행하고 있다. 관련 기사는 http://www.media-center.or.kr/Main.do?snsmenuno=3&selectId=143&mscope_id=14 참조.

부산감천문화마을

았다. 응답결과는 실로 놀라웠는데,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제안들로 스태프들의 욕구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유사한 응답들을 확인하며 상영 담당자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민들도 엿볼 수 있었다.

일 년에 한 번, 함께 듣고 배우고 공감하는 시간

올해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상영활동 : 지역 네트워크하기', '우리 지역에 맞는 프로그래밍 : 상영프로그램 기획/진행하기'**라는 제목으로, 각각 강연과 센터 사례발표를 '세트'처럼 구성해 진행했다. 첫 번째 프로그램에서는 대구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김영숙 센터장님이 (마을)공동체의 이해와 가치에 관한 이야기, 공동체 단위로 진행되는 대구지역의 미디어활동 사례들(도서관, 협동조합 등 마을단위의 공동체 단체 혹은 동성아트홀, 오오극장 등 공동체 상영관 등), 그리고 활동을 하며 부딪쳤던 문제, 한계, 고민 등을 나누어주셨다. 다른 무엇보다 마을공동체 내 시민주체와 마을미디어 활동가 발굴의 중요성, 그리고 미디어-마을공동체 간의

잦은, 그리고 적극적인 만남이 필요함을 강조하셨다. 김영숙 센터장님의 강연이 옆 반 '우등생'의 공부비법을 전수받는 시간이었다면, 원주영상미디어센터 한누리 선생님의 사례발표는 우리 반 '우등생'의 치열했던 활동과정을 듣는 자리였다. 원주센터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다큐멘터리동호회 '나무'와 원주 시민들로 구성된 상영기획위원회 소개 등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통해 서로 공감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두 번째 영화 프로그래밍에 대한 강연은 부산국제영화제 김영우 프로그래머가 맡아주셨다. 무려 영화제 기간임에도! 전국 각지에서 모인 상영스태프들을 위해 흔쾌히 참석해주셨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공공성/접근성의 문제에 입각해 미디어센터 상영뿐 아니라 영화제와 같은 대안적 상영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 등 보다 근본적인 지점을 짚어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많은 공감을 샀다. 단발적인 이벤트성 상영회나 당장의 결과에 연연하는 프로그램 기획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시야로 새로운 관객들, 영화 공동체를 발굴해 나가야 하는 것이 미디어센터의 역할임을 강조하며, 우리의 주먹을 불끈 쥐게 만들었다. 이후, 진주시민미디어센터 정수진 선생님의 솔직담백한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올해 9회까지 진행된 <진주같은영화제>를 중심으로 한 사례발표였는데 비단 성공담만이 아니라 재미있는 에피소드, 실수와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까지 가감 없이 들려주어 귀를 즐겁게 해주셨다.

모자라고 아쉬운 스태프 교류, 그래서 계속한다

이후 화려했던(!) 뒤풀이 자리까지, 워크숍 기간 내내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지만 아쉬운 점도 많다. 많고 많은 이야기들을 고작 몇 시간 안에 집어넣으려니 당연하다. 또한, 각 미디어센터의 상황과 조건이 다르다 보니,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도 제각각이다. 하지만 왕도라는 것은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의견을 묻고 또 모여보고 싶다.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 만남을 갖고 작은 고민이라도 서로 나누다 보면, 그리고 그게 한 해 한 해 쌓이다 보면, 혼자 고민하던 어떤 것들이 의외로 풀릴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각 지역에서 '사람과 사람을 잇는' 상영활동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어지면' 좋지 않을까.

워크숍 이후 전해주신 후기 하나를 소개하면서 글을 마치고 싶다.

"전국에 흩어져 멀게만 느껴지던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어있고,비슷한 방향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에 위로받고 마음이 따뜻해져서 갑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연결'될 수 있기를,
그리고 함께 배우고 즐겨주시기를!

* 이 글은 <미디어스코프> Vol.22에 실린 글입니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상영사업 사례집

영화봤어, 오늘도 ♪

발행일	2017년 1월
발행처	(사)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기획 및 편집	김진숙 김예은
글쓴이 (가나다순)	고정은 곽태형 김대겸 김명아 김예은 김정승 김진숙 김태진 김하영 김형섭 박예솔 박일헌 박재용 박혜림 변해원 손인숙 신성미 신인혜 심재희 심효진 원 민 이진희 이현주 정동은 조정주
디자인	(주)비타민컴
인쇄	예지미술

(사)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04626 서울 중구 퇴계로 36길 2 본관 4층
전화번호 070-4352-6394 **팩스** 070-7614-2206
홈페이지 www.krmedia.org

본 사례집은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비매품